

Annual Report

2015

KBS시청자상담백서





Contents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15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6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43
4. 상담내용 분석	55
5. 정보공개 안내	97
※시청자 권익보호란?	98
6. KBS 고충처리인 활동	100
7. 제작진의 답변	102
8. 부록 (관련근거)	
- KBS 방송강령	111
- KBS 민원사무처리규정	114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19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21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KBS는 방송법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54조(업무)¹⁾에 따른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 권익보호를 위해 시청자본부내 시청자서비스부를 두고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365 일(1 일, 24 시간 상담)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이다. 시청자상담실의 방송전문 상담원은 23 명이며 주간 2 교대, 야간 2 조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의 주요 업무는 KBS 프로그램의 다양한 방송정보를 시청자에게 알려주고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다.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ARS, 서신,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민원의 정확한 처리와 사내 공지까지 신속함,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KBS 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 따듯한 충고를 경청하고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 시까지의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 KBS 사내 전산망 업무공지란에 게시해 방송제작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KBS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해 시청자에게 민원처리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에서는 또한 KBS의 대 시청자서비스 업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 정보공개, [TV비평 시청자데스크], [열린채널], KBS 견학홀, KBS 시청자광장 수행 업무 홈페이지로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iaudience.kbs.co.kr>

■ 상담실 이메일 : happykbs@kbs.co.kr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1588-1801



1) 4p참고

[방송법 제 54조]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 내지 제 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 국가는 제1항 제 5조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1 시청자상담 가이드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나?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의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 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 하는가?

2

2015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15년 한 해 동안 상담전화와 인터넷, 방문,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453,067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관련 의견(313,984건 69.3%)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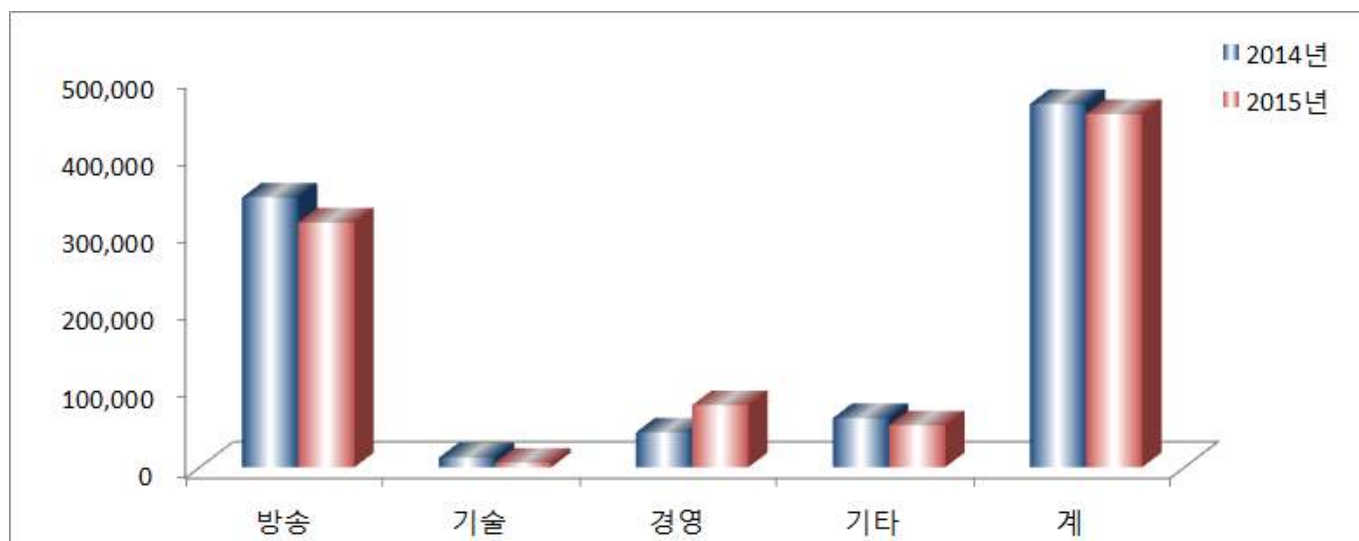
기 간	상 담 건 수	증 감	증 감 률
2015년	453,067	▼ 13,086	-2.81%
2014년	466,153	▼ 28,976	-5.85%
2013년	495,129	▼ 244,689	-33.07%
2012년	739,818	▲ 136,432	22.61%

2 시청자의견 집계

■ 2015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	29,910	587	9,025	4,744	44,266	
2	22,837	459	8,677	3,890	35,863	
3	28,492	623	10,136	4,643	43,894	
4	27,340	518	6,810	4,639	39,307	
5	26,131	424	5,972	4,003	36,530	
6	24,422	496	5,569	4,405	34,892	
7	25,791	446	6,053	4,535	36,825	
8	24,143	474	5,319	4,692	34,628	
9	23,364	409	5,387	4,407	33,567	
10	23,551	424	5,374	4,276	33,625	
11	27,338	432	5,289	4,620	37,679	
12	30,665	458	5,952	4,916	41,991	
계	건	313,984	5,750	79,563	53,770	453,067
	비율	69.3%	1.3%	17.6%	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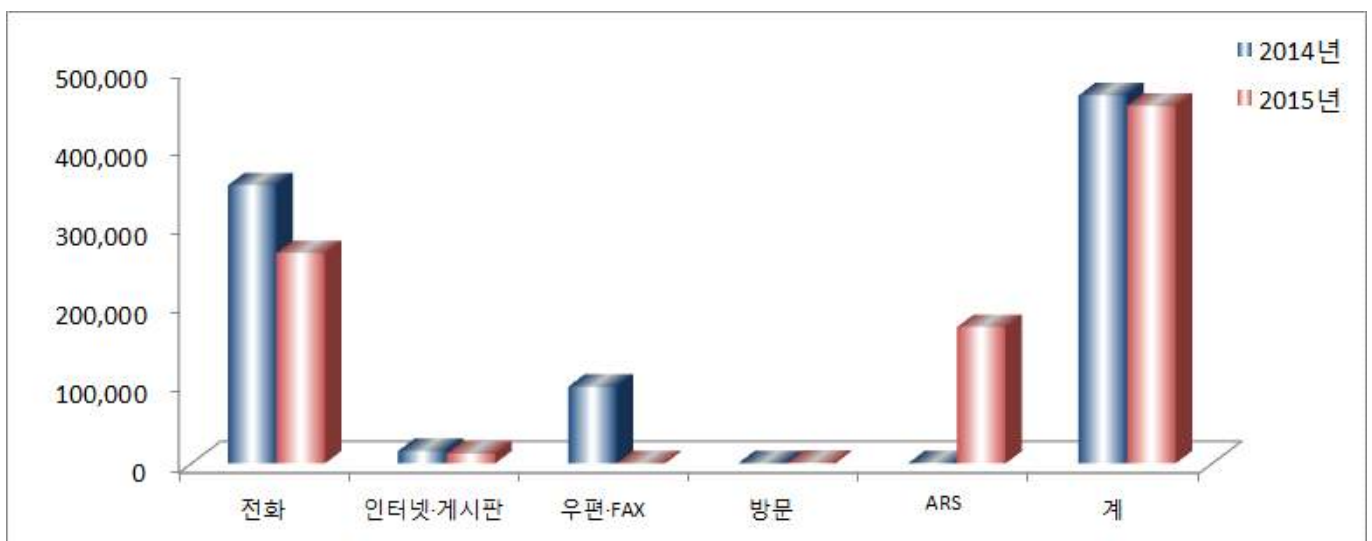
[2014년, 2015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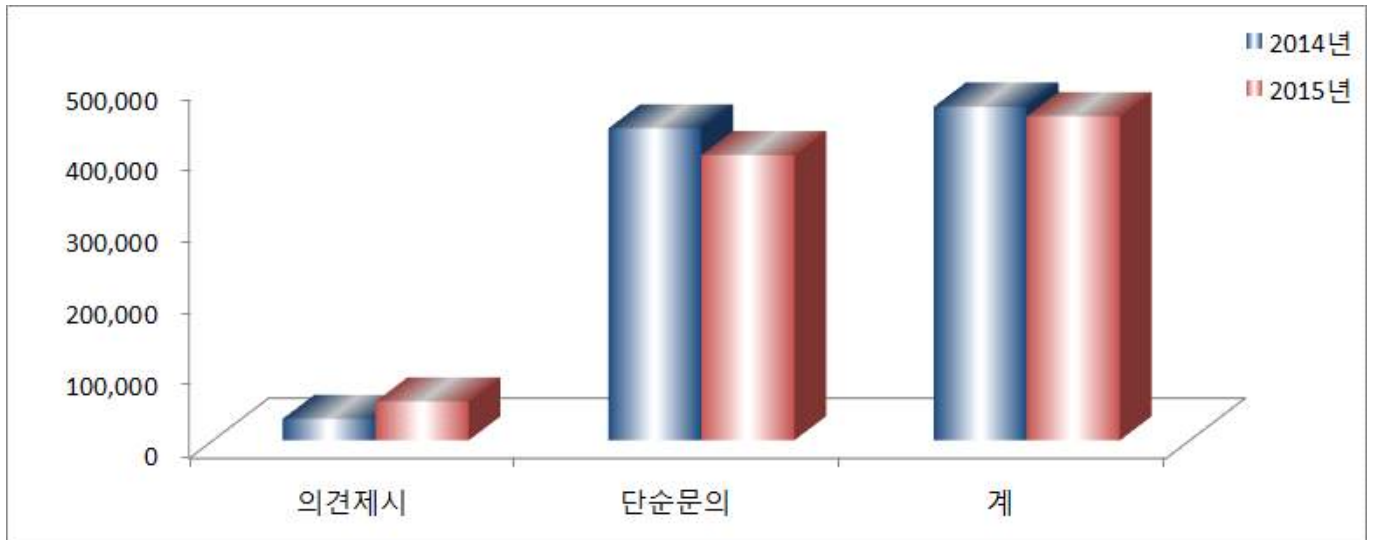
■ 2015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방문	ARS	계	
1	25,308	1,473	26	55	17,404	44,266	
2	19,380	917	36	35	15,495	35,863	
3	23,513	2,469	34	37	17,841	43,894	
4	23,086	1,745	22	45	14,409	39,307	
5	20,937	765	24	39	14,765	36,530	
6	20,561	833	29	47	13,422	34,892	
7	22,464	866	41	80	13,374	36,825	
8	21,252	734	38	53	12,551	34,628	
9	20,909	691	36	42	11,889	33,567	
10	21,317	540	36	44	11,688	33,625	
11	22,513	629	43	45	14,446	37,676	
12	25,355	939	50	46	15,604	41,994	
계	건	266,595	12,601	415	568	172,888	453,067
	비율	58.8%	2.8%	0.1%	0.1%	3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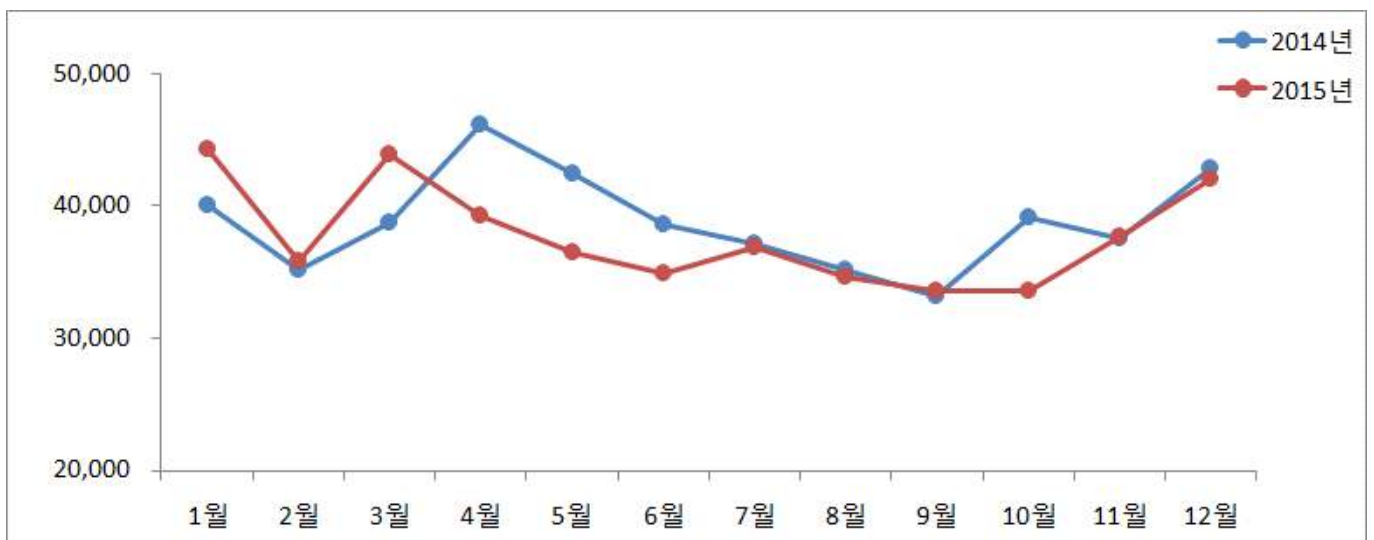
[2014년, 2015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2014년, 2015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2014년, 2015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비교]



■ 2015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53	50	-	65	66	2	13	-	17	266	
2	53	27	2	48	785	10	9	-	2	936	
3	19	31	34	91	38	12	9	-	6	240	
4	25	35	154	76	91	10	14	-	11	416	
5	11	15	-	33	44	5	6	-	2	116	
6	25	27	31	48	46	21	19	-	-	217	
7	236	208	3	59	126	11	76	-	3	722	
8	29	35	-	49	180	16	2	-	1	312	
9	47	22	5	73	41	16	8	-	1	213	
10	370	26	2	61	40	8	9	-	1	517	
11	304	43	7	88	33	11	13	-	3	502	
12	214	38	-	529	226	74	12	-	-	1,093	
계	건수	1,386	557	238	1,220	1,716	196	190	-	47	5,550
	비율	25.0%	10.0%	4.3%	22.0%	30.9%	3.5%	3.4%	0.0%	0.8%	100.0%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ID 영상	충청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도담삼봉'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줬다. 그런데 자막으로 '충북 담양'이라고 잘못 표기됐다. '담양군'은 전라남도에 속해있는 지명이다. 앞으로는 자막 제작 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7
2월	두근두근 인도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6명이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낯선 땅에 가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20대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내용으로 2월 2일(월)에 인도로 출국해 촬영을 진행한다고 한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발생했으며 외교부에서 지정한 일부 황색경보 국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관광지는 '여행유의'인 남색경보지만 15개 주는 '여행자제' 지역이다. KBS 홍보실 보도 자료를 통해 제작진이 안전 확인을 포함한 모든 답사를 마친 상태라는 내용을 접했으나 현지답사만으로 완전한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 방송 날짜도 미정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는 시기에 촬영을 해도 될 것이다. 단순히 연예인을 아끼는 팬으로써가 아닌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임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754
3월	2015 K리그 클래식	3월 7일(토)부터 2015 K리그 클래식 경기가 시작됐다. KBS에서는 개막경기에 이어 K리그 클래식 경기를 월 2회 지속적으로 중계해준다고 해 매우 반가웠다. 그동안 K리그 개막 경기나 국제 경기 외에는 K리그 중계가 이뤄지지 않아 축구 팬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컸는데 중계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 K리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월드컵 시즌에만 축구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중계방송으로 국내 축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준 KBS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K리그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양질의 중계방송 제공에 힘써주기 바란다.	32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4월	2015 K리그 클래식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FC 서울의 중계방송을 시청했다. 경기 시작 전 짚어준 관전 포인트나 선수들의 활약상 등을 미리 설명해 줘 시청자들이 경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골을 넣는 장면이나 유효한 슈팅 장면 때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줘 현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이외에도 선수들을 밀착해서 보여주는 카메라 기법이나 경기장 위에서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볼 수 있는 특수한 촬영기법(지라프 헤드) 등 KBS가 보유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준 높은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수준 높은 중계방송으로 시청자들의 흥미와 몰입을 높여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12
5월	출발 드림팀 시즌2	어린이날 특집으로 아빠와 아이가 힘을 합쳐 장애물을 넘는 수상경기를 펼쳤다. 평소 드림팀의 경기 난이도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아빠와 아이가 힘과 지혜를 모아 장애물을 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본인의 기분도 좋아졌다. 또 완주를 하지 못해 서운해 하는 아이들의 솔직한 반응은 치열했던 성인들의 경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모습이었다.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매우 시기적절한 내용이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에도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5
6월	2015 FIFA 여자 월드컵	캐나다에서 열린 2015 FIFA 여자 월드컵 E조 대한민국 대 스페인 경기가 중계되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해서 여자 축구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남자축구 중심이었는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여자축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되도록이면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 중계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재방송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7
7월	KBS 뉴스광장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 감독 김조광수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의 혼인신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 첫 심문이 열렸다. 이에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결혼 사례가 없는데, 미국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보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편파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중립적인 내용을 보도해 주기 바란다.	154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8월	특별생방송 광복70년 국민 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광복 70년을 맞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민대합창은 지난 180일간의 여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해방동이합창단, 연아합창단, 아침합창단 등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가 좋았다. 그런데 실제 공연에서는 김연아만 노래하는 모습으로 보여 높은 경쟁률로 합격한 20대 합창 단원들은 코러스 역할로 비추어져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또, 선곡된 노래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좋았지만, 다소 젊은 세대들만 공감할 수 있는 출연자와 노래로 구성되어 아쉬웠다. 국민대합창이라는 취지에 맞는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무대가 꾸며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후 제작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69
9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특히 이번 주는 한국인의 7대 질환 특집으로 대장암과 뇌졸증을 주제로 방송되어 유익했다. 이날 방송은 퇴행성 척추질환에 대해 방송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갑작스럽게 결방되어 아쉬웠다. 특집으로 방송되는 만큼 결방 시에는 사전에 고지해 주기 바란다.	16
10월	정규 방송 결방 불만	2015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중계방송으로 「1박 2일」이 결방되었다. 평소 「1박 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즐겨 보는 시청자로서 많이 아쉬웠다. 경기를 끝까지 중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 방송 편성 시간은 지켜주기 바란다. 또한 자막으로 변경 일정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	285
11월	정규 방송 요청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전국 노래자랑」과 「열린 음악회」방송이 결방된다는 안내 자막을 봤다.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처럼 해당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시청자도 많을 것이다. 한 주간의 쌓인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음악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는 애청자로 아쉬운 마음이 크다. 앞으로 본인과 같은 시청자의 마음도 헤아려서 편성해 주기 바란다.	106
12월	특집다큐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추가 테러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무슬림을 미화시키는 내용이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차후 방송 제작 시에는 방송 시점을 고려하고 무슬림에 대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416

3 월별 Top 10 의견

| 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ID 영상]	27	충청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도담삼봉'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줬다. 그런데 자막으로 '충북 담양'이라고 잘못 표기됐다. '담양군'은 전라남도에 속해있는 지명이다. 앞으로는 자막 제작 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TV [열린음악회]	26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했다. 본인은 15일 방청을 신청했는데 1월 1일과 1월 14일 방청에 당첨됐다는 문자가 왔다. 시청자상담실로 확인해 보니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정정된 내용이 다시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받은 문자에서야 본인이 신청한 날짜에 방청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본인 외에도 잘못된 문자를 받고 당황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시청자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작은 부분에도 실수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2TV [개그 콘서트]	12	'사동이는 아빠 딸' 코너에서는 아빠가 딸에게 새해 목표를 묻는 장면이 나왔다. 딸 역할로 나오는 개그우먼 김승혜가 "꼭 김치 먹는데 성공해서 김치녀가 되겠다."고 하며 "오빠 나 명품백 사줘. 아니면 신상 구두."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나왔다. '김치녀'는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우리나라 여성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남성에게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 방송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11일(일) 첫 방송된 '부영이' 코너에서는 산 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으로 출연하는 개그맨 장유환이 부영이로부터 길 안내를 받던 중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개그맨 이상구가 "재는 못 나나봐."라고 발언하고 박쥐 분장을 한 개그맨 박성호는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진 저 사람의 기분을 내가 알 것 같아."라고 말했다. 부영이와 낭떠러지, 즉 이러한 설정은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을 등반하던 중 부영이 바위에서 투신한 사건이 떠올라 시청하기 불쾌했다. 부영이는 '일베(일간베스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동물로 유희거리로 사용되며 추락사와 맞물려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베(일간베스트)'는 극우 성향의 정치색, 소수자에 대한 비하, 막장 문화로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이러한 매체에서 유희거리로 사용되는 소재를 개그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편집을 거쳐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인터넷 용어 사용에 신중하기 바라며 방송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재 선정 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p>1TV [KBS 뉴스9]</p>	<p>6</p>	<p>스피드스케이팅 '매스 스타트'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아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략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빙속 국가대표 선수의 인터뷰 중 "저희나라 선수들이 지금 상위 랭커에 있는 것 같고요."라는 발언을 했다. '저희'는 '우리'를 상대방에게 낮춰 부르는 표현이다. 시청자들에게 지나치게 예의를 갖춰 발언하다 보니 방송에서 종종 '저희나라'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나라는 겸양의 대상이 아니니 '우리나라'로 표현해야 한다. 사전 인터뷰일 경우 부적절한 표현은 편집 후 방송해 주기 바란다.</p>
<p>1TV [KBS 뉴스9]</p>	<p>5</p>	<p>어린이집 교사가 반찬을 남긴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폭행을 당한 아이를 비롯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보도된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가정이 많은데 연이어 보도되는 폭행 사건으로 인해 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며 국내 보육 시스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 어린이집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에도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심층 보도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보도 중, 자료화면으로 CCTV 영상이 4차례나 반복되어 나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굳이 여러 차례 보여줄 필요가 있는지 의아하다.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p>
<p>1TV [KBS 뉴스9]</p>	<p>5</p>	<p>모범 어린이집 우수 사례: 인천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보육교사 자질 검증 필요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 합격률이 95%에 달하며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교사들의 자질에 대한 부분이 함께 나온다. 교사 자질에 대한 검증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고 보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감한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피해사례만이 아닌 귀감이 되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해 주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아침마당]	5	의학박사 홍혜걸이 출연해 건강검진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CT나 PET 기기 등을 이용한 건강검진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촬영 기기들은 비용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방사능 노출에 우려가 있다고 알렸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도 정확한 검진이 가능한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조건 규모가 큰 병원을 찾거나 인터넷, 언론에 노출이 많은 전문의를 선호하기보다 가까운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빠른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상세한 설명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될 것이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쉽고 빠르게 전파되어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방법이며 유익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건강에 대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선택법이나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 강연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TV [KBS 뉴스광장]	5	본인은 평소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매일 아침「KBS 뉴스광장」'출근길 교통상황'을 빠짐없이 시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를 연결해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상습 정체구간들의 교통흐름을 알려줘 이동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방송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교통정보가 나오지 않아 무척 답답하다. 출근길을 준비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출근길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뿌리깊은 미래]	4	1954년 6월, 독도 동도바위벽에 '한국령(韓國領)'이라는 문구를 새긴 독도 의용수비대 홍순철 대장. 영상을 통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독도 의용수비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내용 중,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이 '수류탄, M16, M1, 박격포'를 개인 돈으로 마련했다는 부분이 있다. 'M16'은 1957년경 개발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경부터 사용됐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방송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기타 [홈페이지 개편 제언]	4	2015년을 맞아 KBS 홈페이지가 개편됐다. 방청권 신청 게시판 등이 새로 신설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 점이 돋보인다. 그런데 편성표는 다소 불편해진 부분이 있다. 기존에는 편성표상에서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다시보기 서비스가 바로 가능했지만 개편 후에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다시보기가 가능해졌다. 또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채널을 설정하면 오늘 날짜로 다시 돌아와 채널 설정 후 다시 날짜를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 이미지를 편성표에서 함께 보여주다 보니 프로그램명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단순히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 익숙해서라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다. 홈페이지 편성표는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 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p>2TV [두근두근 인도]</p>	<p>754</p>	<p>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6명이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낯선 땅에 가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20대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내용으로 2월 2일(월)에 인도로 출국해 촬영을 진행한다고 한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발생했으며 외교부에서 지정한 일부 황색경보 국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관광지는 '여행유의'인 남색 경보지만 15개 주는 '여행자제' 지역이다. KBS 홍보실 보도 자료를 통해 제작진이 안전 확인을 포함한 모든 답사를 마친 상태라는 내용을 접했으나 현지답사만으로 완전한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 방송날짜도 미정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는 시기에 촬영을 해도 될 것이다. 단순히 연예인을 아끼는 팬으로써가 아닌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임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p>
<p>1TV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p>	<p>23</p>	<p>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런데 10일(화)과 달리 11일(수)은 실시간 방송이 아닌 녹화로 중계됐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녹화해서 방송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앞으로는 녹화 방송이 아닌 실시간 중계를 해주기 바란다.</p>
<p>1TV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p>	<p>11</p>	<p>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중계방송됐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남 병역 면제 및 논문 표절, 언론보도 개입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 도중 방송이 중단돼 인사청문회를 마지막까지 시청할 수 없었다. 또한 오후에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방송이 편성되지 않아 아쉬웠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정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케이블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들은 시청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방송해 주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러브 인 아시아]	6	22일(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종영됐다. 지난 10년간 결혼이주 민 가정의 소식을 담백하게 담아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도 왔던 프로그램이다. 본인도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다문화가정과 소통할 수 있었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그 런데 프로그램이 폐지돼 아쉬운 마음이 크다. 그동안 사회의 편견을 깨기 위해 방송에 출연했던 가족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더불어 10년의 세월 동안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준 제작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차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바른 인식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이 제작되길 바란다.
2TV [용감한 가족]	4	여섯 명의 출연자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활에 적응해 가는 모습이 현 실적으로 느껴졌으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 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물건 값을 깎는 모습이 자주 연출된다. 어느 정도 물건 값을 흥정하는 것은 재미를 위해 필요한 장면이 라고 생각되나 과하게 덤을 요구하거나 무조건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방송을 본 관광객들이 캄보디아 방문 시 비슷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 기도 하다. 다소 과하게 여겨질 수 있는 연출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주말 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4	아버지 차순봉(유동근 분)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 각자의 위치 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식들이 이야기를 담아내며 유종의 미를 장식 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인 가족노래자랑을 개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는 최백호의 '길 위에서'를 부르며 시한부로서 지나 온 세월을 회상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해 보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 미를 웃음과 감동으로 전한 훌륭한 드라마였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가족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의 비애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사 랑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내용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귀감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악역이나 막장 요소가 없어도 충분히 시청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 준 연기자와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와 격려 의 박수를 보낸다.
1TV [콘서트 7080]	3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했다. 당첨자 발표는 매주 목요일 정오(12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도록 게시판이 열리지 않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미리 방청 신청을 하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한 시간도 길 게 느껴진다. 앞으로는 시청자 참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지한 시간에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p>1TV</p> <p>[똑똑한 소비자 리포트]</p>	3	<p>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집성목 도마'의 위험성에 대해 방송했다. 도마를 제조할 때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포함된 공업용 본드를 사용해 나무 조각을 이어붙이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보통 나무 도마는 사용이 편리하고 칼의 손상이 적어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나 정도는 구비하고 있다. 본인도 얼마 전 도마를 새로 교체해서 사용 중이었는데 방송을 본 후 '집성목 도마'임을 알게 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에서 통판 도마와 '집성목 도마'의 차이를 비교해 주어 많은 시청자들이 도마를 구입할 때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도마가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통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수입되고 있어 안전기준이 얼마나 허술한 지 알 수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도마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짚어 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p>
<p>2TV</p> <p>[여유만만]</p>	3	<p>고전 '동의보감' 속에 담겨진 조상들의 지혜와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을 통해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의학 서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 매우 놀라웠다. 또한 '동의보감'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증상과 치료 방법을 알려주고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병에 대한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고전이라고 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강조한 고전으로 여성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책으로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현대의학에 발맞춘 변화를 적절하게 해석해줘 무척 유익했다.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며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에 대한 자부심과 고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좋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아침 시간대를 편안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p>
<p>2TV</p> <p>[비타민]</p>	3	<p>자주 사용하는 치약의 성분과 유해성,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방송했다. 가족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심 있게 시청했다. 방송 중 유해성분이 들어간 치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해봤지만 제품 목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전화로 확인해 봤지만 유해 제품을 목록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검수를 거쳐 실제와 다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p>1TV [2015 K리그 클래식]</p>	<p>32</p>	<p>3월 7일(토)부터 2015 K리그 클래식 경기가 시작됐다. KBS에서는 개막 경기에 이어 K리그 클래식 경기를 월 2회 지속적으로 중계해준다고 해 매우 반가웠다. 그동안 K리그 개막 경기나 국제 경기 외에는 K리그 중계가 이뤄지지 않아 축구 팬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컸는데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 K리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월드컵 시즌에만 축구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중계방송으로 국내 축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준 KBS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K리그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양질의 중계방송 제공에 힘써주기 바란다.</p>
<p>1TV [한국방송88년 공사창립42주년 특집 이미지 장사익의 아주 특별한 만남]</p>	<p>9</p>	<p>지난 2월 10일(화), KBS홀에서 진행했던 「한국방송88년 공사창립42주년 특집 이미지 장사익의 아주 특별한 만남」을 방송했다. 평소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던 무대로 콘서트 당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TV로 시청할 수 있어 반가웠다. 데뷔 이후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며 국민가수로 불리는 이미지와 전통 소리와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장사익의 신명나는 합동 무대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특별한 무대를 통해 시청자가 한국방송의 공사창립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줘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주기 바란다.</p>
<p>1TV [KBS 뉴스9]</p>	<p>8</p>	<p>본인은 횡집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바닷물고기에서 '고래회충'이라 불리는 기생충이 많이 검출돼 감염된 물고기를 날로 먹을 경우 심각한 급성 통증을 유발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갯바위에서 낚아 올린 망상어의 뱃속에서 붉은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혐오스러운 장면과 함께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횡집에서 초밥을 먹고 생선회를 뜨는 장면까지 보여줬다. 물고기에서 발견된 기생충과 생선회를 보고 마음 놓고 생선을 사먹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울산 앞바다에서 잡힌 일부 물고기에서 기생충이 발견된 것뿐인데 먹이사슬에 의해 모든 생선이 감염될 수 있고 기생충과 생선회를 찍은 자료화면이 연속해서 나와 무척 속상하다. 보도 이후 가게에 손님이 끊겨 운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파급력을 감안해 신중하게 편집했어야 했다. 실제 양식어류에는 기생충이 없다는 내용과 고래회충이 먹이사슬에 의해 최종 단계인 고래까지 가지 못하도록 해결 방안은 없는지 추가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추적 60분]	5	패션업계의 노동력 착취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젊은 청년들은 인턴이라는 명목하에 최저임금 이하의 조건을 강요받고 있었다. 이들은 밤샘과 허드렛일에 시달리면서도 경험을 쌓기 위한 일종의 수순이라고 생각하며 희생당하고 있었다. 방송을 보며 청년들의 열정을 귀하게 여겨주지 못하는 사회가 개탄스러웠다. 경기불황으로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시기적절한 내용이 방송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다. 무급 인턴제나 교육생 제도가 노동력 착취라는 것을 사회 전반에 인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1TV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5	한 주간 화제가 된 지구촌 소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4일(토)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출연자들의 토론을 통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더불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사 문제를 유쾌하게 전달해줘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뉴스를 전달하다보니 일부 내용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90분이라는 방송시간을 잘 할애하여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수의 주제를 선정해 깊이 있는 내용을 짚어준다면 좋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글로벌 정보쇼 세계인」을 통해 시청자들이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	4	출연자들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여 순위를 정하는 건강검진 투어 2탄이 방송됐다. 기초체력을 점검하고 요속과 대변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주말 저녁 식사시간대라 시청하기 거북했다. 앞으로 방송시간대를 감안해 시청하기 불편한 내용은 방송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3.1절 특집 김마리아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다]	4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로 한 평생을 걸어온 김마리아의 삶을 조명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여성운동가의 삶을 통해 3.1절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과거를 재연한 장면에서 태극기의 건·곤·감·리 4괘 중 '리'와 '곤'의 모양이 동일하게 그려져 있었다. 국기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 만큼 소품 제작에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1 대 100]	4	1인과 100인의 문제 풀이 대결로 즐겨 시청한다. 대부분 1인 도전자로 2명이 출연하는데 간혹 도전자가 1명인 경우도 있다. 도전자가 1명일 경우 2명의 도전자가 출연할 때보다 진행자와 100인이 사담을 나누는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평소 문제풀이 과정에서 지식을 얻고 긴장감도 느낄 수 있는데 사담이 많은 경우엔 집중도가 떨어져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방송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줄여주기 바람이며 퀴즈 프로그램인 만큼 조금 더 긴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광복 70년 미래 30년 오늘 미래를 만나다]	4	평소 만나기 어려운 저명한 인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세계 최대 전자결제 회사인 페이팔(PayPal)의 창업자인 피터 툴(Peter Thiel)은 경쟁업체가 많은 사업에서 전에 없던 제품이나 서비스로 유일한 존재가 되라며 독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줘 신선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연 내용을 우리말로 자막 표기해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런데 자막의 위치가 자주 변경돼 자막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자막 위치는 한 곳에 고정해주시기 바람이며 시청자들이 강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가급적 더빙이나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란다.
1TV [영화극장]	4	굳이 극장을 찾지 않아도 보다 쉽게 우리말 더빙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폐지되어 무척 아쉽다. 수도권 거주자들은 곳곳에 문화시설이 있어 영화를 보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극장을 찾아가야만 한다. 지역 거주자들이 보다 쉽게 우리말 더빙 외화를 시청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영화극장」을 다시 방송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p>1TV [2015 K리그 클래식]</p>	<p>112</p>	<p>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FC 서울의 중계방송을 시청했다. 경기 시작 전 짚어준 관전 포인트나 선수들의 활약상 등을 미리 설명해 줘 시청자들이 경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골을 넣는 장면이나 유효한 슈팅 장면 때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줘 현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이외에도 선수들을 밀착해서 보여주는 카메라 기법이나 경기장 위에서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볼 수 있는 특수한 촬영기법(지라프 헤드) 등 KBS가 보유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준 높은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수준 높은 중계방송으로 시청자들의 흥미와 몰입을 높여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p>
<p>1TV [KBS 뉴스9(스포츠)]</p>	<p>38</p>	<p>14일(화) 치러진 프로야구 한화 VS 삼성의 경기 소식을 전했다. 프로야구 한화의 김성근 감독이 과거 SK 시절부터 비디오 판독 도입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으나 오늘은 자신이 반대하던 비디오 판독을 1회부터 이용해 실점 위기를 넘겼다고 했다. 또한 삼성이 기회를 잡자 한화의 일본인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통역과 투수, 포수를 포함해 무려 5명이 의사소통을 하며 상대의 흐름을 끊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오심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당연히 비디오 판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외국인 선수와 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까지 맥을 끊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과거 삼성출신 선수인 권혁을 이승엽과 맞붙여 위기를 넘겼다고 하며 이를 김성근 식 독한 야구라고 했다. 좋은 경기를 위한 전략은 한화뿐 아니라 모든 프로야구팀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맥을 끊었다.', '김성근 식 독한 야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김성근 감독이 승리에 집착해 경기의 흐름을 끊고 상대 선수들을 자극시키기 위해 선수 배치를 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춰져 매우 불쾌하다. 프로야구에 관심이 없거나 김성근 감독에 대해 잘 모르는 시청자라면 해당 보도를 보고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 앞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p>2TV</p> <p>[나를 돌아봐]</p>	<p>29</p>	<p>타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콘셉트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첫 방송됐다. 출연자 장동민과 유세윤, 유상무는 과거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욕설과 함께 여성 비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장동민의 경우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생각 없이 했던 단순한 발언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으로 문제가 돼 사과를 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했던 발언으로 평소 가치관을 알 수 있기도 하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출연자나 진행자에 대한 잣대가 더욱 엄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이들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출연자로 섭외하는 것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출연자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제작진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출연자 섭외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p>
<p>2TV</p> <p>[위기탈출 넘버원]</p>	<p>23</p>	<p>본인은 횡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3월, 고래회충 보도로 인해 현재까지도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이후 여러 차례 고래회충 안전성에 대한 방송이 되어 국민들이 양식 어류 등에 대한 안전함을 믿고 다시 횡집을 찾고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이번「위기탈출 넘버원」방송으로 인해 또다시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방송에서는 생선의 내장과 아가미, 실제 사례자의 복부 내시경 영상에서 꿈틀거리는 고래회충의 모습이 수차례 나왔고 이 모습은 횡집을 하고 있는 본인이 보기에 생선회를 먹기 겁날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다. 고래회충 파문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함이었겠지만 자극적인 영상으로 오히려 생선회에 대한 거부감만 더해졌다. 동일 내용이 재방송으로 편성돼 본인과 같은 영세사업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거부감이 느껴질 만한 장면은 화면효과 처리 후 방송해 주기 바란다.</p>
<p>1TV</p> <p>[KBS 뉴스9]</p>	<p>14</p>	<p>문이 열린 채 차량이 출발하면서 어린이가 떨어졌는데 학원 측의 미숙한 대응으로 아이가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됐다고 보도했다. '태권도 학원 차량', '학원'이라는 명칭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는데 태권도를 가르치는 곳은 '태권도 도장(道場)'이다. 또한 학원과 달리 종합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관리주체도 교육청이 아닌 구청이다. 시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개그 콘서트]	12	축구를 하는 남자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자 연예인 축구하면은 민호는 남자답고 (시아)준수 멋있는데 이덕화는 뺄도 뺄도”라고 했다. 그런데 시아준수의 시아는 묵음 처리되고 준수라는 이름만 희미하게만 들렸다. 김준수는 JYJ로 활동하면서 동방신기 시절 쓰던 예명 ‘시아준수’와 ‘시아’ 등을 본명과 같이 쓰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도 아니고 버젓이 사진까지 방송에 내보내면서 이름을 묵음처리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JYJ가 공중파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진 않은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또한 이는 김준수는 물론 그의 팬들에게까지도 상처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제작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10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출연자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을 통해 여당, 야당,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며 연금 개혁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일부 출연자의 경우 다른 출연자를 배려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등 토론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시청하기 불편했다. 더구나 해당 출연자는 진행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계속 이어가 더욱 눈살이 찌푸려졌다. 토론이 과열되어 방송을 원활히 이어나가지 못할 경우 단순한 제재가 아닌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출연자의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를 무음처리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 출연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1TV [KBS네트워크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9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듣고 노래에 얽힌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어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주일에 한 번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방송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4월 7일(화)에는 해당 방송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됐다. 당일 방송의 경우 지역총국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음악 프로그램이다 보니 현장감이나 음향이 TV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KBS네트워크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를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배려해 가급적 결방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열린음악회]	6	지난 17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시청자들과 함께 했는데 더 이상 황수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무척 아쉽고 허전하다. 그동안 차분하고 편안한 진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준 황수경 아나운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R [임백천의 라디오 7080]	6	5일(일), 13시 26분경부터 진행자의 멘트와 노래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현상이 약 4분가량 이어졌다. 그런데 해당 부분에 대한 양해 멘트도 없이 방송이 끝나 당황스러웠다. 본인 기기에만 문제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 콩 게시판에 접속해보니 많은 청취자들의 항의가 있었다. 앞으로는 청취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방송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짧게라도 양해 멘트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p>2TV</p> <p>[출발 드림팀 시즌2]</p>	<p>15</p>	<p>어린이날 특집으로 아빠와 아이가 힘을 합쳐 장애물을 넘는 수상경기를 펼쳤다. 평소 드림팀의 경기 난이도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아빠와 아이가 힘과 지혜를 모아 장애물을 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본인의 기분도 좋아졌다. 또 완주를 하지 못해 서운해 하는 아이들의 솔직한 반응은 치열했던 성인들의 경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모습이었다.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매우 시기적절한 내용이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에도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p>
<p>1TV</p> <p>[가요무대]</p>	<p>6</p>	<p>가정의 달 기획 특집으로 효(孝)를 주제로 한 극장식 쇼가 방송됐다. 국악과 트로트, 동춘 서커스와 콩트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로 방송을 보는 내내 눈과 귀가 즐거웠다. 이제는 거의 사라져서 접하기 힘든 동춘 서커스의 현란한 묘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낼 만큼 감탄을 연발케 했다. 특히 '내 사랑 순선 씨'에서는 93세의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기삼씨가 나와 노모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해 진정한 효심을 느낄 수 있었고 방송을 보는 본인도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시기적절한 무대를 마련해 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 많은 시청자들이 흥겨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p>
<p>1TV</p> <p>[역사저널 그날]</p>	<p>5</p>	<p>출연자가 정약용과 정약전의 유배지를 '토끼 꼬리'라고 표현했다. 정약용이 처음 유배를 떠난 곳은 '경상북도 장기현'이며 현재 위치로 말하면 경상북도 포항시의 호미곶(虎尾串)이다. 호미곶(虎尾串)은 '토끼 꼬리'가 아닌 호랑이 꼬리'를 의미한다. 호미곶을 '토끼 꼬리'로 표현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이다.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전문가로 출연한 사람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실망스럽다.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p>
<p>2TV</p> <p>[해피 선데이]</p>	<p>4</p>	<p>출연자들의 배꼽에 먹물을 채운 후 배를 쳐서 배꼽 안의 물을 빼낸 뒤 남은 먹물 양을 재는 게임을 진행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배꼽에서 제거하기 위해 손으로 배를 치는 모습이 다소 가학적으로 느껴져 시청하기 거북했다. '1박 2일'은 아이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경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보다는 단순한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신체를 이용한 게임은 가급적 자제해 주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특집 일하는 당신 행복하십니까]	2	백화점 판매원, 콜센터(고객센터) 직원, 항공기 객실 승무원, 버스 승무원, 아르바이트생 등 감정노동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을 가진 이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를 보며 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이 방송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감정 노동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평일에 재방송을 편성해 준다면 더욱 유익할 것 같다. 사람들의 감성과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KBS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TV [인간극장]	2	올해 나이가 백여섯 살이 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고령의 나이에도 등산과 걷기대회를 참가할 만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 문대전 씨는 지역에서도 매우 유명하다고 한다. 문대전 씨가 고령에 나이에도 이처럼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30년간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아들 정원복 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배우자도 없이 혼자 몸으로 노모를 돌보고 항상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방송을 보며 고생만 하다가 현재는 병석에 누워계신 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흘렀다. 본인처럼 매년 이맘때면 어버이날이라며 용돈 몇 푼 쥐어드리고 자식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고령의 어머니와 아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시기적절한 내용을 방송해 준 제작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TV [아침마당]	2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의 음악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열 살에 맨해튼 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하여 러시아악파의 마지막 거장인 알버트 마르코프를 사사했다. 특히 17살에 카네기홀에서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 기상곡을 2시간가량 단독으로 연주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곡은 악보 보기조차 힘들다는 곡으로 우예주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런 그가 2013년부터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예술의 도시 춘천과 전 세계의 대표 문화예술의 도시 뉴욕을 오가며 두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연을 들으며 우리에게 축복이라 생각했다. 다만, 천재적인 우예주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약 1분 정도의 짧은 연주만 들려주고 방송을 종료하여 아쉬움이 너무 컸다. 추후 훌륭한 음악가가 출연하였을 때 시청자가 충분히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방송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p>2TV [KBS 아침 뉴스타임]</p>	<p>2</p>	<p>일상생활 중 쌓인 스트레스를 운동과 노래 등으로 푸는 방법을 소개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2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야구방망이로 물건을 부술 수 있는 일명 '스트레스 해소방'을 소개했다. '스트레스 해소방'은 부수고 싶은 물건을 고르고 방음장치가 된 방으로 들어가 방망이를 내리쳐 사정없이 부수는 방식이었다. 물건을 부수는 당사자는 스트레스가 풀릴지 몰라도 그런 모습을 보는 본인은 다소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시청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것은 좋지만 다소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p>
<p>1TV [KBS 뉴스광장]</p>	<p>2</p>	<p>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던 홈쇼핑 업체의 보상기준에 대해 보도했다. 제품의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남아있는 제품의 양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백수오의 제조업체보다는 판매하는 홈쇼핑 회사를 믿고 구매한 것인데 고작 남은 양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해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 본인도 효능을 강조한 홈쇼핑 회사의 말만 믿고 장기간 백수오 제품을 섭취했는데 남은 양이 없다며 환불을 거절당했다. 회사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인과 같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해야 할지 알지 못해 답답하다. 홈쇼핑사의 안일한 대처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p>
<p>1TV [가요무대]</p>	<p>2</p>	<p>첫 무대로 가수 김부자가 출연해 단양팔경을 부르기 위해 무대로 올라왔다. 가수 이름이 자막으로 나왔는데 '김부자'가 아닌 '김부선'으로 표기됐다. 자막에 오류가 없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p>

| 6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2015 FIFA 여자 월드컵]	17	캐나다에서 열린 2015 FIFA 여자 월드컵 E조 대한민국 대 스페인 경기가 중계되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해서 여자 축구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남자축구 중심이었는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여자축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되도록이면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 중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재방송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2015 K리그 클래식]	10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성남 FC 대 광주 FC 경기가 진행되었다. K리그 중계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축구 팬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컸는데 시청할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이영표 해설위원의 해설은 축구를 보는 재미를 더했다. 지속적인 중계방송으로 국내 축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준 KBS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TV [가요무대]	9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며 추억할 수 있어 즐겨 보고 있다. 그런데 역대 도박설로 논란이 된 태진아가 출연하여 보는 내내 불편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공영방송인 KBS에 출연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 출연자 섭외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6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면서 안전, 방어 운전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이 보도되었는데, "성인 동호인들은 도로에서 신호와 오른쪽 갓길 주행을 준수해야 하고"라고 나왔다. 자전거는 도로 교통법상 면허 없이도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로 규정되어있다. 도로에서 갓길 주행을 준수하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라인]	6	메르스로 인한 2명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휴업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뉴스에서 방송된 내용 중 잘못된 표현이 있다. "학교 휴업 잇따라... 수학여행도 취소"라고 방송되었는데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휴업이 아닌 휴교가 맞는 것 같다. 정확한 표현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2TV [위기탈출 넘버원]	6	메르스는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사스와 유사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현재 언론에서는 감염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고 있고, 시청자들은 대처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원한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위기탈출 넘버원 전염병 편에서 에볼라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에도 메르스 특집 편을 편성하여 방송해 주면 유익할 것 같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사랑의 리퀘스트]	6	평소 어려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했다.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도 전화 한 통화로 부담 없이 후원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2015년 개편으로 폐지되어 아쉽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편성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TV [러브 인 아시아]	5	국경을 넘어 꿈과 사랑을 이어가는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이다. 언어와 피부색이 달라도 결혼 이민자로,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인식 전환과 가족의 가치와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아쉽게도 프로그램이 폐지되어 안타깝다. 추후에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편성되기 바란다.
1TV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4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어 유심히 방송을 시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가 출연하여 자폐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알려 주고 실제 사례를 보여주어 좋았다. 그런데 해결방안이 없이 방송이 끝나 아쉬웠다. 치료 방법이나 정부 지원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같이 제시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1TV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4	다양한 가족의 삶을 통해 부모와 자식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조명하는 드라마로 재미있게 보고 있다. 그런데 극 중에서 재희(정우진 역) 왼쪽 앞머리가 눈을 가려 보기 불편했다.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 7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광장]	154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의 혼인신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 첫 심문이 열렸었다. 이에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결혼 사례가 없는데, 미국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보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편파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중립적인 내용을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열린 음악회]	95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매주 「열린 음악회」 방송 시간만을 기다리는 시청자인데 사전에 안내 없이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당분간 결방된다는 소식을 접해 혹시라도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홈페이지나 방송 자막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안내해주기 바람더 빠른 시일 내에 재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대조영]	92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역사의 변방으로 인식되어온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삶을 그린 드라마이다. 주중에 매일 방영하여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즐겨보는 시청자인데, 사전에 고지 없이 갑자기 결방되어 아쉽다. 부득이하게 결방될 경우 미리 자막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1TV [도전! 골든벨]	74	고등학생 대상 퀴즈 프로그램으로 각종 일반 상식이나 시사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어 즐겨 시청한다. 단순히 퀴즈 게임에서 일등을 뽑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재치와 생각, 가치관과 문화 등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유익하다. 그런데 7월 5일 방송이 결방되고, 다음 주도 결방이 예정되어 있어 아쉽다. 「도전! 골든벨」을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배려해 가급적 결방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1R [KBS 공감토론]	71	'동성 간 혼인 법제화 논란 쟁점과 파장'을 주제로 법률적으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할지 여부를 토론했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변호인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생방송 시간 동안 시청자 문자 참여로 의견도 받아 함께 공유했다. 그런데 방송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문자 참여를 하라는 내용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려지면서 의견이 계속 반영되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문자 참여를 하게 되면 "#9730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BS 1라디오"라고 회신이 왔다.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문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인간극장]	30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 감동을 느끼고 때론 나의 삶을 반성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 간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인간극장」을 통해 사람의 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이웃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즐겨 시청했다. 그런데 방학 특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 결혼해요'편이 재방송 되어 아쉽다. 새로운 사연을 통해 훈훈한 마음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을 기대해 본다.
1TV [KBS 뉴스9]	17	한국 야구 홈런의 역사인 이승엽이 개인 통산 9번째 올스타에 선정되었다. 일본에서의 8년간 공백에도 KBO 사상 최초 400홈런을 돌파했고 여전히 3할대 타율로 실력도 최정상급이다. 특히 장외 홈런을 친 뒤 상대 투수를 배려하는 모습은 보기 흐뭇했다. 그런데 보도 중에 다른 선수와 비교하는 영상은 보기 불편했다. 세리머니가 짧은 이승엽과 세리머니가 가장 긴 선수를 비교한 자료라고는 하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1TV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14	제28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는 2015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과 200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어 기대된다.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주말에 시청하고 싶었는데, 하이라이트 외에는 방송되지 않아 아쉬웠다. 자주 열리는 경기가 아닌 만큼 중계방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TV [이웃집 찰스]	10	자신이 살던 나라를 떠나 낯선 한국 땅으로 온 외국인들의 정착기를 다룬 프로그램이다. 단순 여행이나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학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며 느끼는 감정과 고민들을 담아내어 보기 좋았다. 그런데 여름 특집 방송으로 재방송이 편성되어 아쉬웠다. 앞으로 재방송 편성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9	옆 차선의 오토바이를 부딪쳐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가 폭력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제한속도 80km인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70km로 느리게 운전하여 승합차가 일부러 부딪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나 승합차 운전자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느리게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다. 그런데 승합차 구속 내용만 보도되어 아쉽다. 도로교통법에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명시되어 있는데 교통법 제도 개선 여지는 없는지를 선진국과 비교하여 추가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p>1TV</p> <p>[특별생방송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p>	69	<p>광복 70년을 맞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민대합창은 지난 180일간의 여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해방동이합창단, 연아합창단, 아침합창단 등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가 좋았다. 그런데 실제 공연에서는 김연아만 노래하는 모습으로 보여 높은 경쟁률로 합격한 20대 합창단원들은 코러스 역할로 비추어져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또, 선곡된 노래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좋았지만, 다소 젊은 세대들만 공감할 수 있는 출연자와 노래로 구성되어 아쉬웠다. 국민대합창이라는 취지에 맞는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무대가 꾸며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후 제작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p>
<p>2TV</p> <p>[나를 돌아봐]</p>	43	<p>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화가 나고,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마음가짐을 확실하고 간단하게 바꾸는 길은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이 되어 똑같이 겪어보는 방법뿐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겪어보며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제작되어 즐겨 시청했다. 그런데 제작발표회 등 출연자들 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또, 최민수가 외주제작사 PD를 폭행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방송 취지와는 어긋나서 아쉬운 마음이 든다. 출연자 섭외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p>
<p>2TV</p> <p>[위기탈출 넘버원]</p>	22	<p>안전 표지판을 지키지 않고 무심코 넘어가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 국제 표준화 기구가 채택한 안전 표지판의 뜻이 무엇인지 퀴즈를 통해 출연자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퀴즈를 맞힌 경우에는 선물을 주고, 틀린 경우에는 칼국수가 출연자에게 발사되는 벌칙을 받았다. 칼국수는 먹는 음식인데 사람에게 던지는 벌칙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니 주의해 주기 바란다.</p>
<p>1TV</p> <p>[특별생방송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p>	8	<p>8월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뜻 깊은 광복 70년을 맞이해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즐긴 국민 대합창 '나는 대한민국'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연아합창단, 1945합창단과 아침합창단 등이 선보인 무대는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7만 명이 넘는 관객들과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과 애국가는 시청자들도 한마음이 되어 따라 부르게 되고 가슴 뭉클한 큰 감동을 주었다.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느라 고생한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	8	북한의 잇단 도발로 촉발된 남북 간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 모습을 긴급하게 KBS뉴스 속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제시해줘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된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KBS에서 보다 많은 시간동안 뉴스 속보로 방송해 주길 바란다.
2TV [반려동물 극장 단짝]	7	1인 가구와 노령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인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매주 즐겨 시청했다. 방송을 통해 다른 반려동물을 볼 수 있어서 즐겁고 스트레스도 풀려 좋았다. 그런데 방송이 중영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 편성을 요청한다.
2TV [해피 선데이]	6	그동안 육아에 소홀했던 아빠들의 육아 도전기를 다룬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삼둥이와 사랑이, 유토가 서당에서 1박 2일 동안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천자문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견스러웠다. 또, 존댓말의 중요성과 식사 예절 등 아이들에게 교육해주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예절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기에 유익했다. 한국 문화와 전통예절을 알려주는 좋은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2TV [수목 드라마 어셈블리]	6	현실적인 정치와 정치판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주제로 한 드라마이다. 오늘날 정치의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국회의원들의 속내를 알 수 있어 기대하며 보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과 조연들의 연기력이 훌륭해 그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진상필(정재영 분)과 최인경(송윤아 분)의 연기가 돋보인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기를 바라며 드라마를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TV [KBS 아침 뉴스타임]	4	중국에서 별세한 故 이맹희 CJ 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국내로 운구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빈소를 찾았다. 이번 조문을 계기로 삼성가와 CJ가문 간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범 삼성가 가계도를 자료화면으로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는데, '姑 이병철, 姑 이창희'로 한자가 잘못 표기되었다. 정확한 한자로 표기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광장]	4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5년 만인 오는 20일에 내려진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에 기소되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업체명이 한신공영으로 잘못 보도되었다. 한신건영이 맞는 업체이니 오류 없이 보도해 주기 바란다.

| 9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6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특히 이번 주는 한국인의 7대 질환 특집으로 대장암과 뇌졸중을 주제로 방송되어 유익했다. 이날 방송은 퇴행성 척추질환에 대해 방송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갑작스럽게 결방되어 아쉬웠다. 특집으로 방송되는 만큼 결방 시에는 사전에 고지해 주기 바란다.
2TV [수목 드라마 어셈블리]	14	국회를 배경으로 한 정치 드라마로 탄탄한 스토리와 주·조연들의 내공 깊은 연기를 볼 수 있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정규방송시간에 보지 못하는 경우 평일에 재방송되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재방송을 하지 않아 못 보게 되어 많이 아쉽다. 본인과 같은 사람을 위해 재방송을 다시 해 주기 바란다.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	바쁜 현대인들의 비타민 섭취와 관련하여 '비타민제 먹을 것인가 VS 말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실제로 문자, 티벳,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받아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좋았다. 그런데 매번 방송참여 방법에 대해 초반에 한번만 언급되어 중간에 보는 시청자의 경우 의견을 낼 수 없어 답답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 화면에 자막으로 계속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다. 방송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인 만큼 개선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특보]	10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노동개혁을 위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여 특보로 생중계되었다. 그런데 「아침마당」을 기다리던 사람으로 안내 없이 갑자기 기존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아 답답했다. 자막으로 안내해 주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차후 편성시간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고지해 주기 바란다.
2TV [수목 드라마 어셈블리]	8	국회를 배경으로 현실적인 오늘날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 즐겨 시청했는데 중영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매회 울고 웃으며 진한 감동을 선사해준 배우들의 명품 연기력은 신랄한 비판에서부터 가슴 뭉클한 감정까지 시청자에게 전달해주어 보는 재미를 더해주었다. 또, 난해한 정치를 쉽게 풀어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해주어 여운이 오래 남을 것 같다.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가요무대]	8	불멸의 가수, 영원의 노래 2부로 고복수, 이난영, 김정구 편이 방송되었다. 옛 가수들의 노래를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첫 무대를 꾸민 태진아의 목소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듣기 불편했다. 또, 태진아는 역대 도박설로 논란이 되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공영 방송인 KBS에 출연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다. 출연자 섭외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2TV [2015 프로야구]	6	한화 이글스 대 KIA 타이거즈 경기가 중계 방송되었다. 오랜만에 프로야구를 시청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정규 편성된 「2TV 저녁」, 「일일드라마 다 잘될 꺼야」, 「생생정보」, 「1대 100」 등의 프로그램들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정규 방송에 지장 없이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출발 드림팀 시즌2]	6	볼케이노 머드 레슬링 여자편이 진행되었다. 건강 미녀들이 펼치는 치열하고 뜨거운 승부로 재미있었다. 그런데 우승상품으로 제시된 음파동 전신 운동기구가 천만 원 상당이라고 방송되었는데, 이 상품은 440만원 상당의 제품이고 해당 업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현재 소송 중이다. 협찬 제품도 주의 깊게 확인 후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2015 K리그 클래식]	4	전북 현대모터스 대 FC 서울 양 팀의 시즌 세 번째 대결이 중계방송되었다. 스포츠가 많이 중계되지 않아 아쉬운데 KBS에서 방송해주어 감사하다. 또, 한준희 해설위원의 중계는 보는 재미를 더해주었다. 앞으로도 많은 중계를 해주기 바라며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TV [KBS 뉴스라인]	4	남미 칠레 연안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하와이와 일본까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쓰나미'는 일본어로 '해일'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 10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정규 방송 결방 불만]	285	2015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중계방송으로 「1박 2일」이 결방되었다. 평소 「1박 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즐겨 보는 시청자로서 많이 아쉬웠다. 경기를 끝까지 중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 방송 편성 시간은 지켜주기 바란다. 또한 자막으로 변경 일정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
1TV [ID 영상]	28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원정리 느티나무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자막으로 충청남도 보은군으로 잘못 표기되었다. 보은군은 충청북도에 속해 있는 지명이다. 자막 제작 시 실수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TV [비타민]	13	실생활에 밀접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건강 검색어를 통해 의사들의 건강법을 알아보았는데 유익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절대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 중 한약이 있었다. 하지만 한약은 음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의사들만 출연한 방송에서 해당 의견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차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추석특선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12	추석에는 특선영화가 많이 방영되어 편성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시청한다. 2014년 말에 개봉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KBS에 편성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방송시간에 TV를 틀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당황스러웠다. 편성표를 확인해 보니 변경된 편성시간이 확인되었다. 차후에는 포털 매체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2TV [해피 선데이]	10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연하는 아이들 모두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엄태웅 가족이 하차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고 엄정화를 쏙 빼닮은 엄지온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는데 볼 수 없다니 아쉬운 마음이 든다. 계속 출연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추석특선 영화 패딩턴]	9	폭풍우에 가족을 잃고 페루에서 영국까지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 곰의 특별한 여행기를 다룬 영화이다. 매력적인 곰들이 출연하여 유쾌하고 감동적이었고 더빙으로 방영해 주어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기에 좋았다. 더빙으로 된 영화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데,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에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자주 더빙 영화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KBS 아침 뉴스타임]	7	도토리는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중금속 배출을 돕는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가을 산에서 나는 보약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보도 내용 중 기자가 “잘 여문 도토리는 일부러 따지 않아도 깎정에서 떨어져 쉽게 주울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산에 있는 도토리는 야생동물의 겨울 식량으로 채취가 금지되어 있는데, 도토리 채취 행위 금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차후 보도 시에는 채취 행위 금지에 대해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2TV [해피 선데이]	6	아내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연예인 아빠의 육아도전기를 다룬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다. 그런데 방송 내용 중에 이동국이 막내아들을 위해 쌀 튀밥으로 간이 풀장을 만들어 주는 장면이 보기 불편했다. 아이들에게 촉감놀이는 오감발달에 좋지만,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모습은 아쉬웠다. 앞으로는 신경 써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KBS네트워크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6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듣고 노래에 얽힌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어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한 번만 방송되어 그 시간만 기다리게 된다. 그런데 9월 29일에는 추석 특선 영화가 편성되고 10월 6일은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또, 10월 13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 편성으로 총 3주간 결방 예정이라고 한다.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배려해 가급적 결방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도전! 골든벨]	4	고등학생 대상 퀴즈 프로그램으로 각종 일반 상식이나 시사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45번 음악 문제에서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인데 모차르트 연주곡 중 일부라고 방송되었다. 학생들과 다양한 연령대가 시청하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 1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정규 방송 요청]	106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전국 노래자랑」 「열린 음악회」 방송이 결방된다는 안내 자막을 봤다.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처럼 해당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시청자도 많을 것이다. 한 주간의 쌓인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음악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는 애청자로 볼 수 없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 앞으로 편성에서는 본인과 같은 시청자의 마음도 헤아려서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수목 드라마 장사의 신-객주 2015]	79	탐욕이 아닌 정의로운 부를 쌓는 장사꾼의 이야기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프로야구 중계방송으로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일주일에 2번 방송으로 그날만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되면 좋을 것 같다.
1TV [가요무대]	48	1985년부터 이어오는 잔잔한 향수와 추억이 담긴 「가요무대」가 방송 30년을 맞이하여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져 즐겁게 시청했다. 특히 이미지, 현철, 설운도 등 실력 있는 가수들이 많이 출연하여 보기 좋았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어 다시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1TV [가요무대]	34	중년층부터 노년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로 다른 특집 프로그램 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특집 프로그램 편성 시에는 자막으로 고지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TV [KBS 뉴스9]	17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입관식이 거행되었다. 국가장인 만큼 방송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 같다. 그런데 모자이크 없이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 우리나라 정서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이러한 장면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수목 드라마 장사의 신-객주 2015]	13	「수목 드라마 장사의 신-객주 2015」을 즐겨 보는 시청자이다.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 재방송까지 챙겨본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일요일 밤 시간대에 재방송이 편성되어 아쉬운 느낌이 든다. 본인은 직장인으로 일요일에는 시청하기가 부담스럽다. 기존 재방송 시간대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시사진단]	10	여야는 물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열린 출연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화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중동 문제 전문가인 이희수 교수와 테러 전문가인 이종화 교수가 출연하여 파리 테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 호의적 입장인 이희수 교수가 출연하여 보기 불편했다. 토론 프로그램의 특성상 중립적인 태도로 방송에 임할 수 있는 출연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2TV [2015 프로야구]	6	한국시리즈 3차전 삼성 라이온즈 대 두산 베어스 경기가 중계방송 되었다. 그런데 해설위원이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발언하여 듣기 불편했다. 본인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현재 가뭄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발언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	5	혹한기 영양 섭취 능력테스트를 했다. 테스트 종목 중 강풍기 앞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람에 라면이 날라 갔다. 그런데 먹는 음식을 재미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 같아 매우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다른 소재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4	이날 가요무대는 세종인문도시로 알려진 여주시 종합운동장에서 야외 무대로 방송되었다. 무대에 앞서 진행자가 여주시의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 생가를 보며 설명해주고 신록사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었다. 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무대들로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아졌다. 특히 '신토불이', '잘했군 잘했어'등 토속적인 트로트를 선보인 배일호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목소리를 가진 김연자가 출연하여 화려한 무대를 꾸며주었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1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특집다큐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	416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추가 테러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무슬림을 미화시키는 내용이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차후 방송 제작 시에는 방송 시점을 고려해 주고 무슬림에 대해 편중되지 않은 측면으로 방송되면 좋을 것 같다.
비채널 [세월호 공개 청문회 방송 요청]	157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개 청문회가 12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초기 구조 상황과 정부 대응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방송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은 세월호 공개 청문회를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137	2015 연말결선이 KBS홀에서 진행되어 방청예약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확인했다.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여서 전화를 시도했는데 계속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했다. 선착순 접수의 경우 여러 대의 전화로 접수받거나 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받으면 좋을 것 같다. 차후 진행 시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성탄 특집 KBS 다큐 1 일사각오 주기철]	59	3:1운동에 참가한 후 목사로 활동하며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을 계속하다 1938년 일본 경찰에게 검거되어 복역 중 옥사한 목사이자 독립운동가 주기철에 대해 방송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기철의 일대기를 재구성하여 오롯이 '일사각오'의 길을 걸어간 그의 생애를 재조명하였는데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어 보기 좋았다.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기에도 매우 유익했다. 주기철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좋은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TV 2015 KBS 연기대상	57	KBS 드라마를 정리하는 축제로 한 해 동안 드라마를 빛낸 배우도 볼 수 있고 좋아했던 드라마를 다시금 추억할 수 있어 방송을 기다렸다. 현장에서 좋아하는 배우도 보고 축제를 즐기고 싶어 방청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일반인 방청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하여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내년에는 시청자들도 시상식을 방청석에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성탄 특집 KBS 다큐 1 일사각오 주기철]	32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애국정신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악정을 단호히 거부한 주기철의 생애를 재조명하여 방송되었다. 일본 침략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어 방송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방송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	18	엄마가 없는 48시간 동안의 아빠들의 육아 도전을 다룬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12인실 병동에 입원해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온이네 가족을 좋아한다. 그런데 최근 지온이네 가족이 하차하여 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고 온순하고 귀여운 엄지손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계속 출연하도록 고려해 주기 바란다.
1TV 특집 좌담 위안부 합의, 한일관계 물꼬트나	1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정부의 회담이 전격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를 섭외하여 위안부 합의의 의미와 평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좌담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방송을 보는 내내 중립적이지 못한 토론 내용으로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중립성 있는 패널들을 섭외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	12	삼둥이네 가족이 하차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거웠다.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좋아 항상 즐겨 시청했다. 또, 송일국의 자상한 아빠의 모습은 보기 좋았다. 이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쉽지만, 차후에 삼둥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 바란다.
1TV 2015 KBS 트로트 대축 제	10	트로트 대축제 방청에 당첨되었다. 12월 17일 11시부터 선착순으로 표를 배부한다고 하여 추운 날씨에도 7시부터 줄을 서서 15번째로 표를 받았다. 그런데 막상 표를 받아보니 2층 좌석이였다. 1층은 지정석으로 제외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향후 선착순으로 표를 배부할 경우 공정하게 배부해 주기 바란다.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1 주요의견 선정 기준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법익(명예훼손, 성명, 초상, 음성 침해, 모욕죄)에 침해를 받은 내용

△ 방송제작의 공명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명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KBS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최우선적으로 시청자의 권익과 프로그램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점으로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논란, 논거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피해, 외주제작사 관련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 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 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my k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요청, 심층보도요청, 후속보도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제언, 보도제언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강령,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제작진의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시 청 자 상 담 일 일 보 고 서

광복 70년, 미래 30년
대한민국 100년의 트라이-

2015. 9. 30.[수]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9.30.)

■ KBS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작성: (주)케이티스]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15. 9. 25.(금) 06:00 ~ 2015. 9. 30.(수) 06:00
- 상담건수: 2,758건 (의견 건수: 9 / 다수: 0)
- 주요의견: 1TV 「내 생애 행복한 순간」 - 방송 호평

II. 주요의견 내용

- 프로그램명 : 추석특집 「내 생애 행복한 순간」
방송일시 : 2015. 9. 28.(월) 1TV (18:00-19:00)

- 상담의견 : 방송 호평

양로원에서 단적으로 소문난 세 사람의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시청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는 말도 오가고 있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지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느낄 수 있어 좋았다. 88세 나이에도 미모를 잃지 않는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즐겁고 애뜻한 로맨스를 보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염려하며 우정도 쌓아가는 모습은 보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었다. 노년층의 우정과 사랑을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 ※ 협력제작국 국장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9. 30. 07:15 문자 통보)
- 협력제작1 CP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9. 30. 07:15 문자 통보)
- 협력제작1 팀장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9. 30. 07:15 문자 통보).

Ⅲ.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2,758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1,836	73	2	5	842	2,758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기타	계
1,232	606	66	1	1	852	2,758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364	2,394	-	2,758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898	63	317	480	2,758

시청자 의견 (9)	문 의
<p>【편 성】 (1건) ○ 추석특선영화 「아메리칸 셰프」 - 편성 제언</p> <p>【보 도】 (2건) ○ 「KBS 뉴스7」 외 - 자막 오류 등</p> <p>【스포츠】 (1건) ○ 「2015 세계 리듬체조 올스타 갈라쇼」 - 방송 호평</p> <p>【시사·교양】 (4건) ○ 「KBS 다큐 1」 외 - 방송 호평 등</p> <p>【드라마】 (1건) ○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 방송 호평</p>	<p>【방 송】 ○ 「가요무대」 - ‘방청 방법’ 문의 59건 ○ 「인간극장」 - ‘떡 방앗간’ 연락처 문의 40건 ○ 「추석특집 6시 내고향 고향가는 길」 - ‘김부각(자연향기)’ 연락처 문의 38건 ○ 「2TV 저녁」 - ‘치즈곱창볶음’ 연락처 문의 38건 ○ 「2015 추석장사씨름대회」 - ‘편성’ 문의 36건 외 1,678건</p> <p>【기 술】 ○ 「수신료 및 난시청」 문의 52건 ○ 「주파수」 문의 4건 외 7건</p> <p>【경 영】 ○ 「홈페이지」 문의 152건 ○ 「전화교환」 문의 73건 ○ 「프로그램구입」 문의 64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15건 ○ 「견학」 문의 7건 외 6건</p> <p>【기 타】 ○ 한전 문의사항 외 479건</p>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편성 제언	<p>○ 추석특선영화 「아메리칸 셰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9. 27.(일) 1TV (23:50-01:45) - 본인은 명절이면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특선영화가 방송되어 좋았다. 그런데 밤 시간대에만 영화가 편성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낮 시간에도 영화 편성을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차후 편성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p>※ 참고: - 2015. 9. 28.(월) 1TV (23:50-01:20) 추석 특선영화 패딩턴 방송됨. - 2015. 9. 28.(월) 2TV (21:50-00:00) 추석 특선영화 허삼관 방송됨. - 2015. 9. 29.(화) 2TV (20:30-22:50) 추석 특선영화 명량 방송됨. [KBS 편성표]</p>
[보 도]	
자막 오류	<p>○ 「KBS 뉴스7」 ‘더워지는 한반도…아열대 벼 품종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9. 28.(월) 1TV (19:00-19:20) -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한다.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청에서 신품종이 개발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농업진흥청이 아닌 농촌진흥청이 정확한 명칭이다. 오류 없이 보도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이○○</p> <p>※ 참고: - 실시간 방송시간 19시 06분 30초경 농업진흥청으로 자막 표시됨. [편성제작정보시스템] - 농업진흥청의 공식 명칭은 농촌진흥청임. [한국민족문화대백과]</p>

의견	세부내용
<p>기상 캐스터 호평</p>	<p>○ 「KBS 뉴스9」 ‘일기예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9. 28.(월) 1TV (21:00-22:00) - 9시 뉴스를 시청하며 하루를 마감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일기예보를 유심히 보게 된다. 이세라 기상 캐스터는 단아한 이미지와 맑은 목소리로 날씨를 예보해 주어 좋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맑은 기운을 전해주는 기상캐스터로 오랜 기간 함께 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이○○</p>
<p>[스포츠]</p>	
<p>방송 호평</p>	<p>○ 「2015 세계 리듬체조 올스타 갈라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9. 26.(토) 2TV (17:00-18:05) - 손연재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2015 세계 리듬체조 올스타 갈라쇼」가 방송되었다. 한가위를 맞아 첫 무대는 ‘아리랑’으로 우리의 선율에 맞추어 한복을 입은 선수들이 공연했는데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또, 해설위원의 부연 설명은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온 가족이 흥겨운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방송을 편성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신○○</p>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방송 호평	<p>○ 「KBS 다큐 1」 ‘광복70년 시대의 사운드 트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9. 24.~2015. 9. 25. (22:00-22:55) 1TV 방송. (2부작) - 광복 70년을 맞아 김창남, 임진모 등 4인의 음악자문단과 일반인 351명의 증언 그리고 육성 노래를 모아 ‘시대의 사운드 트랙’을 완성하여 방송되었다. 노래를 통해 격동의 세월을 보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어 좋았다. 또, 젊은 가수 곽진언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된 옛 노래를 들을 수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감동과 울림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방송 호평	<p>○ 추석기획 「아침마당」 ‘추석기획 생생토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9. 25.(금) 1TV (08:25-09:30) - 추석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다. 그런데 이산가족에게 명절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없어 더욱 가슴 아픈 날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산가족 특집으로 ‘꿈엔들 잊으랴. 꼭 한 번만’이라는 내용으로 방송되었는데 상봉한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북에 있는 누님에게 보내는 엄용수의 편지는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났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 추석특집 「2015 퀴즈 온 코리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9. 28.(월) 1TV (10:30-12:00) - 2012년부터 KBS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행사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각국 우승자를 초청해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이날은 한국을 사랑하는 22개국 22인 우승자의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앞장서 주고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방송 호평	<p>○ 추석특집 「내 생애 행복한 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9. 28.(월) 1TV (18:00-19:00) - 양로원에서 단짝으로 소문난 세 사람의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시청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는 말도 오가고 있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지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느낄 수 있어 좋았다. 88세 나이에도 미모를 잃지 않는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즐겁고 애뜻한 로맨스를 보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염려하며 우정도 쌓아가는 모습은 보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었다. 노년층의 우정과 사랑을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박○○</p>

의견	세부내용
[드라마]	
방송 호평	<p>○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월-금) (20:25-21:00) - 가족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기도 한다. 이 드라마는 다양한 가족의 삶을 통해 부모와 가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여 좋다. 특히 모든 출연진의 탄탄한 연기력이 드라마의 집중력을 높여주어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홍○○</p>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p>⊙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52 건 (방송기술 관련 8p 참고)</p>

3. 시청자상담 통계(2015. 9. 25.~ 9. 30.)

(단위: 건)

○ 방송

구분	처리 형태				소계	비고
	전화	방문	서신	인터넷		
편성	168	2	2	9		
보도	413			12		
스포츠	43			3		
교양	781			11		
예능	299			13		
드라마	68			7		
라디오	65			1		
인터넷 방송	-			1		
계	1,837	2	2	57	1,898	

○ 기술

수신료 및 난시청	52				52	
수신기술	3				3	
주파수	4				4	
디지털전환	3				3	
DMB	1				1	
계	63	0	0	0	63	

○ 경영

전화교환	73			-	73	
사업 및 행사	15			-	15	
견학	6			1	7	
주차	5			1	6	
프로그램구입	63			1	64	
홈페이지	151			1	152	
계	313	0	0	4	317	

○ 기타

기타	465	3	-	12	480	
계	465	3	0	12	480	

4

상담내용 분석

| 1. 편성 |

○ 1TV 정규 방송 요청

-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전국 노래자랑」, 「열린 음악회」 방송이 결방된다는 안내 자막을 봤다.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처럼 해당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시청자도 많을 것이다. 한 주간의 쌓인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음악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는 애청자로 볼 수 없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 앞으로 편성에서는 본인과 같은 시청자의 마음도 헤아려서 편성해 주기 바란다. <11월 23일 보고서>

○ 1TV 「열린 음악회」

-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매주 「열린 음악회」 방송 시간만을 기다리는 시청자인데 사전에 안내 없이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당분간 결방된다는 소식을 접해 혹시라도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홈페이지나 방송 자막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안내해 주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편성해 주기 바란다. <7월 28일 보고서>

○ 1TV 「대조영」

-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역사의 변방으로 인식되어온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삶을 그린 드라마이다. 주중에 매일 방영하여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즐겨보는 시청자인데, 사전에 고지 없이 갑자기 결방되어 아쉽다. 부득이하게 결방될 경우 미리 자막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7월 13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

- 고등학생 대상 퀴즈 프로그램으로 각종 일반 상식이나 시사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어 즐겨 시청한다. 단순히 퀴즈 게임에서 일등을 뽑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재치와 생각, 가치관과 문화 등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유익하다. 그런데 7월 5일 방송이 결방되고, 다음 주도 결방이 예정되어 있어 아쉽다. 「도전! 골든벨」을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배려해 가급적 결방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7월 7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1985년부터 이어오는 잔잔한 향수와 추억이 담긴 「가요무대」가 방송 30년을 맞이하여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져 즐겁게 시청했다. 특히 이미자, 현철, 설운도 등 실력 있는 가수들이 많이 출연하여 보기 좋았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어 다시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11월 18일 보고서>

○ 1TV 「성탄 특집 KBS 다큐 1 일사각오 주기철」

-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애국정신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악정을 단호히 거부한 주기철의 생애를 재조명하여 방송되었다. 일본 침략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어 방송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방송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2월 31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

-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 감동을 느끼고 때론 나의 삶을 반성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 간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인간극장」을 통해 사람의 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이웃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즐겨 시청했다. 그런데 방학 특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 결혼해요'편이 재방송되어 아쉽다. 새로운 사연을 통해 훈훈한 마음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을 기대해 본다. <7월 22일 보고서>

○ **1TV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런데 10일(화)과 달리 11일(수)은 실시간 방송이 아닌 녹화로 중계됐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녹화해서 방송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는 녹화 방송이 아닌 실시간 중계를 해 주기 바란다. <2월 12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특히 이번 주는 한국인의 7대 질환 특집으로 대장암과 뇌졸중을 주제로 방송되어 유익했다. 이날 방송은 퇴행성 척추질환에 대해 방송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갑작스럽게 결방되어 아쉬웠다. 특집으로 방송되는 만큼 결방 시에는 사전에 고지해 주기 바란다. <9월 4일 보고서>

○ **1TV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 제28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는 2015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과 200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어 기대된다.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주말에 시청하고 싶었는데, 하이라이트 외에는 방송되지 않아 아쉬웠다. 자주 열리는 경기가 아닌 만큼 중계방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7월 7일 보고서>

○ **1TV 추석특선 영화「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 추석에는 특선영화가 많이 방영되어 편성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시청한다. 2014년 말에 개봉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KBS에 편성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방송시간에 TV를 틀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당황스러웠다. 편성표를 확인해 보니 변경된 편성시간이 확인되었다. 차후에는 포털 매체에 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0월 1일 보고서>

○ **1TV 「이웃집 찰스」**

- 자신이 살던 나라를 떠나 낯선 한국 땅으로 온 외국인들의 정착기를 다룬 프로그램이다. 단순 여행이나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학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며 느끼는 감정과 고민들을 담아내어 보기 좋았다. 그런데 여름 특집 방송으로 재방송이 편성되어 아쉬웠다. 앞으로 재방송 편성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7월 2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노동개혁을 위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여 특보로 생중계되었다. 그런데 「아침마당」을 기다리던 사람으로 안내 없이 갑자기 기존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아 답답했다. 자막으로 안내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후 편성시간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고지해 주기 바란다. <9월 14일 보고서>

○ **1TV 「KBS네트워크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듣고 노래에 얽힌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어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주일에 한 번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방송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4월 7일(화)에는 해당 방송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됐다. 당일 방송의 경우 지역총국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음악 프로그램이다 보니 현장감이나 음향이 TV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KBS네트워크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를 보기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배려해 가급적 결방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 **1TV 「농촌드라마 오! 할매」**

- 평소 농촌 드라마를 좋아해 즐겨 시청했다. 일반 드라마에서는 보기 어려운 자연의 풍경과 따뜻함은 농촌 드라마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인 것 같다. 또, 연기자들의 훌륭한 연기력은 드라마의 재미를 더했다. 회를 거듭할수록 친근하고 감동적이었는데 총 8부작으로 마지막 방송만 예정되어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추후 농촌 드라마 제작 시 고려하여 편성해 주기 바란다. <7월 21일 보고서>

○ **2TV 정규 방송 결방 불만**

- 2015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중계방송으로 「1박 2일」이 결방되었다. 평소 「1박 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즐겨 보는 시청자로서 많이 아쉬웠다. 경기를 끝까지 중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 방송 편성 시간은 지켜주기 바란다. 또한 자막으로 변경 일정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 <10월 12일 보고서>

○ **2TV 수목 드라마「어셈블리」**

- 국회를 배경으로 한 정치 드라마로 탄탄한 스토리와 주·조연들의 내공 깊은 연기를 볼 수 있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정규방송시간에 보지 못하는 경우 평일에 재방송되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재방송을 하지 않아 못 보게 되어 많이 아쉽다. 본인과 같은 사람을 위해 재방송을 다시해 주기 바란다. <9월 7일 보고서>

○ **2TV 수목 드라마 「장사의 신-객주 2015」**

- 탐욕이 아닌 정의로운 부를 쌓는 장사꾼의 이야기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프로야구 중계방송으로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일주일에 2번 방송으로 그날만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되면 좋을 것 같다. <11월 2일 보고서>

○ **2TV 「반려동물 극장 단짝」**

- 1인 가구와 노령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인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매주 즐겨 시청했다. 방송을 통해 다른 반려동물을 볼 수 있어서 즐겁고 스트레스도 풀려 좋았다. 그런데 방송이 종료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 편성을 요청한다. <8월 3일 보고서>

○ **2TV 「2015 프로야구」**

- 한화 이글스 대 KIA 타이거즈 경기가 중계 방송되었다. 오랜만에 프로야구를 시청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정규 편성된 「2TV 저녁」, 「일일드라마 다 잘될 꺼야」, 「생생정보」, 「1대 100」 등의 프로그램들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정규 방송에 지장 없이 편성해 주기 바란다. <9월 17일 보고서>

○ 2TV 「월화 드라마「오 마이 비너스」

-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 비밀 다이어트에 도전하며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이다. 전체적인 내용이 유쾌하여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총 16부작으로 곧 종영될 예정이어서 아쉬운 마음이 든다. 연장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31일 보고서>

○ 2TV 「비타민」

- 실생활에 밀접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항상 매주 수요일에 방송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송을 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 상담실로 문의하니 TV부분조정으로 인해 편성요일이 목요일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오랫동안 수요일에 방송을 했었는데 갑자기 방송요일이 변경되어 아쉬웠다. 가급적 방송요일 변경은 하지 말기 바란다. <9월 7일 보고서>

○ 2TV 「창극 시트콤 옥이네」

- 방송국 PD 역할인 한옥(류화영 분)의 가족을 중심으로 전주박물관에서 사라진 '조선왕조실록'을 찾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평소 낯설게만 느껴왔던 창극을 드라마와 접목해 보다 흥미를 가지고 시청할 수 있었다. 또한 현대적 가사와 주변 인물들의 코믹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했다. 창극 시트콤이라는 전통과 현대의 결합으로 우리의 소리와 문화를 친근하게 알리는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창극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2TV 「공소시효」

- 장기 미제로 남은 실종, 살인 사건 등을 바탕으로 공소시효에 관한 법 개정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준 프로그램이다. 방송을 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었다. 범죄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타방송사에도 많다. 그러나「공소시효」처럼 전문성과 시사성, 화제성을 골고루 갖춘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단순히 사건의 경위나 결과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미제사건을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는데 기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누구나 강력범죄 사건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더 늦기 전에 공소시효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이 많으니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4월 24일 보고서>

○ 2TV 「나를 돌아봐」

- 최근 촬영 중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최민수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되었고,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폐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본인은 개성이 많은 출연자들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이 신선하여 즐겨 시청하고 있다. 최민수가 잘못을 인정하여 공식 사과를 했고, 중장년층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계속 방송해 주기 바란다. <8월 27일 보고서>

○ 2TV 「작정하고 본방사수」

- 시청자들이 TV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로 변화시킨 참신한 방송이었다. 더불어 시청자들의 의견을 직접 대변해 주는 대목이 많아 통쾌함과 공감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12일(목)을 끝으로 종영돼 무척 아쉽다. 신선한 소재와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었던 프로그램인 만큼 시즌 2를 제작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16일 보고서>

○ **2TV 「설 특집 2015 스타 골든벨」**

- 과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타 골든벨」을 재구성해 설 특집으로 방송했다. 인기 연예인들이 출연해 '절대음감'과 '불후의 명탐정' 등의 게임을 하며 유쾌한 입담까지 곁들여져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특히 '액션! 우리말 겨루기' 게임은 초성 맞히기에 코믹한 연기까지 더해져 신선함이 배가됐다.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대중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차후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2월 24일 보고서>

○ **2TV 청춘합창단 특집 프로그램**

- 2011년 「남자의 자격」을 통해 결성된 청춘합창단은 "통일을 위해 노래하자"며 3년 전부터 UN 공연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뉴욕 UN 본부에서 그리운 금강산을 노래하고 통일의 염원을 전 세계에 전했다. 합창단 평균 연령 65세로 국내에서도 많은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자격」프로그램은 종영되었지만, 청춘합창단은 KBS에서 창당한 만큼 감동적인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방송해 주기 바란다. <6월 29일 보고서>

○ **2TV 「2TV 저녁 생생정보」**

- 유명 맛 집의 요리 비법과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줘 무척 도움이 된다. 그런데 방송 요일이 매번 달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 많은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코너인 만큼 고정적인 요일에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27일 보고서>

○ **세월호 공개 청문회 방송 요청**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개 청문회가 12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초기 구조 상황과 정부 대응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방송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은 세월호 공개 청문회를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15일 보고서>

○ **1R 「문화 공감」**

- 다양한 문화계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즐겨듣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2015년 개편으로 인해 방송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 이후로 변경됐다. 다시듣기 서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밤 시간에 청취하며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는 감성의 차이가 매우 크다. 기존처럼 밤 시간대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한민족R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 평소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역사를 드라마 형식으로 꾸며줘 매회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다. 성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전문가의 부연설명이 더해져 더욱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본방송과 재방송시간이 모두 자정 이후라 끝까지 청취하기가 부담스럽다. 더군다나 본인과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보니 다시듣기 서비스도 이용하기가 어렵다. 본방송 시간 변경이 어렵다면 재방송은 가급적 낮 시간대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4월 28일 보고서>

○ **한민족R 「세월따라 노래따라」**

- 흘러간 노래 속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본방송이 새벽 시간대에 방송되어 청취하기에 다소 부담스럽다. 「세월따라 노래따라」를 좋아하는 청취자들을 위해 방송시간을 저녁 시간대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10월 6일 보고서>

| 2. 제작 요청 |

○ 1TV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 한 주간 화제가 된 지구촌 소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4일(토)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출연자들의 토론을 통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더불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사 문제를 유쾌하게 전달해줘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뉴스를 전달하다 보니 일부 내용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90분이라는 방송시간을 잘 할애하여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수의 주제를 선정해 깊이 있는 내용을 짚어준다면 좋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을 통해 시청자들이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3월 18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 치솟고 있는 전세 값과 서민주거 안정 해법에 대한 주제로 방송되었다. 그런데 전세 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느낌이 든다. 현재의 문제점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방송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1월 3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청년실업률이 올해 두 자릿수를 돌파하면서 급기야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N포세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한국 청년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매년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일손이 부족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3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안과질환: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녹내장과 같은 안과질환을 겪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본인도 요즘 들어 눈앞이 뿌옇게 보여 검진을 받아보니 녹내장이라고 했다. 녹내장은 동공 안쪽이 녹색으로 보이는 질환으로 시신경이 약해져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업무 특성상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 앞으로 눈이 더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안과질환은 발병되기 전까지 큰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안과질환의 예방법과 치료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시력회복을 위한 시신경 운동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2월 26일 보고서>

○ 1TV 「광복70년 특집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

-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부 일본인들을 밀착 취재했다. 그들은 자국에서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지난 85년간 공식적으로 사용해 온 지도인 '삼국통람도설'에 독도가 조선의 소유라고 적힌 부분을 훼손하고 원본열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은 세대들 중 일부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은 진실여부에 대한 궁금증조차 적다고 했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을 없애고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3월 4일 보고서>

○ 1TV 「해외결작드라마」

- 본인은 평소 해외결작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다. 예전에 방영된 명화극장이나 프리미엄 영화도 좋았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삼총사도 재밌게 보고 있다. 그런데 후속편 안내가 되지 않아 방송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빙된 외국 영화는 쉽게 접하기 어려워 방송이 유지되기 바란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이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변경해 주기 바란다. <6월 30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흘러간 옛 노래를 추억하며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전 방송 중에 탄생 또는 추모를 위해 특집으로 방송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미 별세는 했지만, 대중에게 인기를 많이 받았던 가수의 노래를 방송을 통해 들으면 추억을 느낄 수 있어 좋다. 후배 가수를 통해 들려주는 좋은 무대가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12월 10일 보고서>

○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 본인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정부는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폭력을 사회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앞 분식점과 문구점에서는 아직도 저가 과자류와 슬러시, 와플 등을 판매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각종 색소와 첨가물로 아이들의 눈과 입을 자극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노력만으로 불량식품 섭취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교육부나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서 있는 작은 상점들을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판매자들 스스로 저가 어린이 식품의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매 당사자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판매·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꾸준한 관리감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불량식품의 유해성과 단속기준,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본인의 가족 중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호전되는 기미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정신과 질환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노력과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다양한 정신분열증의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1TV 「바른말 고운말」

- 우리말을 사용하다보면 '화젯거리', '어젯밤'처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서 단어 사이에 'ㅅ' 받침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받침이 생기는지 잘 몰라 맞춤법을 종종 틀리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단어가 합쳐질 때 'ㅅ' 받침이 생기는 경우와 바른 쓰임을 설명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월 9일 보고서>

○ 1TV 프로그램 제작 요청

- 가정 내 바람직한 예절교육과 인성교육: 최근 우리사회는 양보를 하거나 배려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개인적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각박한 사회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야기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자녀의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부모들도 있다. 물론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집단생활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전통 예절과 가치에 이념을 둔 가정 내 바람직한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28일 보고서>

○ 2TV 「용감한 가족」

- 연예인들이 외국의 가정을 찾아 가상의 가족을 이뤄 생활해 가는 내용이다. 출연자들이 찾아가는 곳은 캄보디아 톤레사프 호수와 라오스 콕싸앗 소금마을이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이라 신선했다. 라오스 편에서 탤런트 박주미가 새롭게 투입돼 개그맨 박명수와 부부로 생활했는데 평소 까칠하게만 보였던 박명수가 남편으로서의 든든한 모습이 비춰져 출연자의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방송 초반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함께 노동을 경험하고 부대끼면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보였다. 회가 거듭할수록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느껴져 좋았는데 더 이상 프로그램을 볼 수 없다니 아쉽다. 시즌 2 제작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4월 6일 보고서>

○ 2TV 「위기탈출 넘버원」

- 메르스는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사스와 유사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현재 언론에서는 감염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고 있고, 시청자들은 대처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원한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위기탈출 넘버원 전염병 편에서 에볼라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에도 메르스 특집 편을 편성하여 방송해 주면 유익할 것 같다. <6월 3일 보고서>

○ 2TV 「발칙한 사물이야기 다빈치 노트」

-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새로운 지식 함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흥미롭게 시청해 왔다. 하나의 사물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방송을 볼 수 없다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 재미와 함께 시청자들의 지적 호기심까지 채워준 유익한 프로그램인 만큼 시즌 2 제작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 2TV 「2TV 아침」

-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모기 퇴치법에 대해 방송되었다. 모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천연 기피제 만드는 법과 효과를 실험을 통해 알려주어 유익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다양한 퇴치법과 생활에서의 감염 예방 수칙을 추가로 방송해 주면 좋을 것 같다. <6월 10일 보고서>

○ 2TV 「반려동물 극장 단짝」

- 1인 가구와 노령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대에 맞게 이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교감을 느끼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가족이 되어가는 행복한 이야기를 다루어 즐겨 시청했다. 그런데 최근 종영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사람과 반려동물 사이의 우정과 사랑은 자극적인 내용 없이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시즌 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8월 21일 보고서>

○ 2TV 「추적 60분」

- 최근 조선족 여자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 후 이혼하여 수천만 원 이상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선족 여자와 한국 남자들의 결혼 피해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방송해 주기 바란다. <11월 11일 보고서>

○ 2TV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 현대 문명의 산물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자연의 조건에 대해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다섯 남자가 도시 건물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도시 농업에 도전하는 내용으로 즐겨 시청했는데 증명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시즌 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12월 4일 보고서>

○ 2TV 「투명인간」

- 직장인들에게 반응을 얻어야하는 출연자와 웃음을 참아야 하는 직장인의 대결구도로 진행된 전반전은 출연자들의 초조한 모습에 긴장감까지 느껴졌다. 간식타임으로 꾸며진 후반전은 뽕망치 대결을 통해 직장 동료 간의 친목과 활력을 전해준 것 같아 보기 좋았다. 연예인 출연자 뿐 아니라 직장인들의 즉흥적인 입담은 보는 재미를 더했다. 앞으로 건설 현장이나 산업현장과 같이 고된 노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찾아가 많은 근로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해 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시청자를 대상으로 퀴즈를 출제하고 정답을 맞힌 사람들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화)부터는 시청자 퀴즈가 출제되지 않고 있다. 시청자 퀴즈는 단순히 상품을 받고자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 시청자가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처럼 시청자 퀴즈를 출제해 시청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1월 16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1박 2일' 시즌 1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시청자 투어를 방송했다. 그런데 지난 시즌 2와 현재 시즌 3에서는 시청자 투어를 진행하지 않아 무척 아쉽다. 출연자와 시청자가 동고동락을 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추억을 만드는 모습은 그 어떤 특집보다도 인상적이었다. 전 세대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마련해 다시 한 번 그때의 감동을 선사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2TV 「마법 천자문」

-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한자를 습득할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2014년에 방송됐던 드라마를 재방송으로 편성해 주고 있다. 총 24부작으로 제작되어 앞으로의 방송이 몇 회 남지 않았다. 지상파에서 유일한 어린이 드라마인데 더 이상 방송을 볼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미래의 시청자를 위한 것이다. KBS는 공영방송인 만큼 단기적인 효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2TV 「열려라 동요세상 (전주총국)」

- 동요는 단순히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감정을 담은 가창이 아닌 교육, 문화적인 가치와 생활 문화, 사회문화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거센 파급으로 인해 방송에서의 입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총국의 경우「열려라 동요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요 프로그램을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2014년 11월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고 있다. 지역총국에 문의해 보니 방송국 사정상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답변을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매체를 통한 대중가요가 대중의 정서를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애창곡도 대중가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중가요에 익숙한 아이들이 감성을 공유하고 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동요 프로그램 제작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1월 27일 보고서>

○ 1R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

- 중국은 13억 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앞으로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문화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중국의 왕권 정치와 공자(孔子), 맹자(孟子)와 같은 사상가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중국 사상가들에 대한 책과 인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면 책속에 담긴 세계관,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에서 소재로 다뤄주기 바란다. <1월 28일 보고서>

○ 1R 「바른말 고운말」

- 본인은 새벽에 라디오를 즐겨 듣는다. 특히 「바른말 고운말」은 올바른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소 '리허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리허설은 외래어로 예행연습, 총연습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와사비는 고추냉이로, 레시피는 조리법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바른말 고운말」에서 소재로 채택해 주기 바란다. <8월 5일 보고서>

○ 1R 「KBS 공감토론」

- 최근 성폭행 혐의로 심학봉 의원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런데 사실 성폭행은 여성들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반대로 일부 여성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에 대한 주제로 방송에서 다루어 주면 좋을 것 같다. <9월 10일 보고서>

○ 2R 스포츠 제언

- 본인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아침 출근 시 대부분 2R(주파수 102.3MHz)를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평일 오전 6시경 한국어의 바른 쓰임을 소개하는 내용이 방송되는데 주제가 매번 동일해 식상하다. 한국어의 올바른 쓰임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면 주기를 정해 주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매일 변경이 어렵다면 일정한 주기를 정해 방송 주제를 바꿔주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 매주 토요일 남창희, 정다운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는 MSG를 재미있게 들었다. 청취자가 보낸 문자, 사연을 있는 그대로 소개한 후 재미있게 각색하여 사연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했다. 그런데 최근 여름특집 힐링타임으로 변경되어 아쉽다. 주말을 시작하는 토요일 오전에 신나게 웃을 수 있도록 코너를 다시 만들어 주기 바란다. <6월 30일 보고서>

○ 캠페인 방송 요청

-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의 골든타임은 생명과도 직결될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에도 양보를 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고의적으로 긴급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길을 비켜주는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KBS에서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을 방송해 골든타임 확보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긴급차량에게는 길을 양보해 줘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4월 22일 보고서>

| 3. 드라마 |

○ 1TV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 최근 드라마 내용을 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폭로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남혜리(지주연 분)는 자신을 키워 준 엄마 이수연(이효춘 분)의 비밀을 알고 난 뒤 집에서 엄마를 쫓아내고 엄마를 '당신'이라고 지칭하는 등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전개상 아직 본인의 친엄마가 오말수(김혜숙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친엄마가 본인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려는 음모를 꾸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계락을 꾸미는 비상식적이고 자극적인 설정은 더 이상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 온가족이 함께 방송을 보는 시간임을 감안해 진한 감동을 주는 가족 드라마로 전개해 주기 바란다. <3월 19일 보고서>

○ 1TV 「우리 집 꼴단지」

- 학자금 대출과 최저 시급 알바 끝에 사회에 떠밀리듯 나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우리 사회의 실태를 반영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극중에서 배우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많아 보기 불편하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드라마를 방송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점을 제작 시 고려해 주기 바란다. <11월 19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 회가 거듭될수록 남혜리(지주연 분)의 악행이 수위를 더하고 있다. 본인의 친엄마가 오말수(김혜숙 분)임을 알고도 친엄마에게 막말을 하는 것은 물론 동생의 아이를 임신한 이지애(한유이 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패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극단적인 캐릭터와 자극적인 설정으로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 수 없다. 또한 드라마는 시청자의 흥미나 관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방송 자체의 영향력이 더해져 사회를 이끄는 힘이 주어지기도 한다.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 <4월 22일 보고서>

○ 2TV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 갖은 어려움을 겪던 주인공 가족들이 해방촌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조금씩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따뜻했던 그 시절을 그려내고자 하는 드라마이다. 그런데 방송에서 서모란의 엄마 오애숙(조은숙 분)이 박민순(황금희 분)에게 “엄마는 말이야 자식을 위해서는 살인자를 만들 수도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 그게 엄마야.”라고 말했는데 듣기 불편했다. 자극적인 언어 선택은 되도록 자제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21일 보고서>

○ 2TV 「2015 KBS 드라마 스페셜」

- 1979년 일제가 숨겨놓은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탈옥한 죄수 3명과 그들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보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과 그로 인한 배신과 음모, 반전을 빠른 전개로 보여줘 흡인력 있게 시청했다. 또한 연기자들이 캐릭터를 잘 소화하며 호연을 펼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극 중 도끼를 이용해 살해를 암시하는 장면이나 탈옥수가 경찰관을 짓밟는 장면 등은 다소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직접적으로 살해하거나 때리는 모습이 방송된 것은 아니지만 앞, 뒤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충분히 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다. 폭력적이거나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은 시청 가능 연령대를 조정해 주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 동생 윤서(윤승아 분)가 속옷 모델을 하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남자 모델이 딱 붙는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 다소 길게 방송됐다. 선정적인 의상에 가슴 근육을 과시하는 모습까지 나와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기 민망했다. 극중 캐릭터가 철없고 천방지축인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었겠지만 굳이 자극적인 모습을 통해야만 캐릭터가 잘 설명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람직하며 따뜻한 가족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 2TV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 힘들고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는 청춘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방송 내용 중 장은아(정이연 분)와 이정훈(최창협 분)의 대화 중에 장은아(정이연 분)가 상대역 이정훈(최창협 분)에게 “재원 치고는 머리가 나쁘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재원은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수재가 맞는 표현이다. 드라마에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8월 18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 「다 잘될 거야」

- 부모·자식, 부부, 연인 등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5년간 외국생활을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온 자식 내외에 대한 시어머니의 분노가 극에 치달았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년”이라고 말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다 당황스러웠다. 온 가족이 시청하는 드라마인 만큼 자극적인 대화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다. <10월 2일 보고서>

○ 드라마 제작 요청

- 최근 들어 극단적인 내용이나 우울한 소재의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는 것 같다. 그런데 아침 드라마의 경우 하루를 시작하며 보는 방송인데 밝은 소재의 드라마가 제작되면 활기찬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침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8월 28일 보고서>

4. 출연자/진행자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출연자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을 통해 여당, 야당,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며 연금 개혁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일부 출연자의 경우 다른 출연자를 배려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등 토론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시청하기 불편했다. 더구나 해당 출연자는 진행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계속 이어가 더욱 눈살이 찌푸려졌다. 토론이 과열되어 방송을 원활히 이어나가지 못할 경우 단순한 제재가 아닌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출연자의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를 무음처리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 출연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1TV 「시사진단」

- 여야는 물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열린 출연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화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중동 문제 전문가인 이희수 교수와 테러 전문가인 이종화 교수가 출연하여 파리 테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 호의적 입장인 이희수 교수가 출연하여 보기 불편했다. 토론 프로그램의 특성상 중립적인 태도로 방송에 임할 수 있는 출연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11월 18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며 추억할 수 있어 즐겨 보고 있다. 그런데 역대 도박설로 논란이 된 태진아가 출연하여 보는 내내 불편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공영방송인 KBS에 출연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 출연자 섭외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6월 1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스피드스케이팅 '매스 스타트'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아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략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빙속 국가대표 선수의 인터뷰 중 "저희나라 선수들이 지금 상위 랭커에 있는 것 같고요."라는 발언을 했다. '저희'는 '우리'를 상대방에게 낮춰 부르는 표현이다. 시청자들에게 지나치게 예의를 갖춰 발언하다 보니 방송에서 종종 '저희나라'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나라는 겸양의 대상이 아니니 '우리나라'로 표현해야 한다. 사전 인터뷰일 경우 부적절한 표현은 편집 후 방송해 주기 바란다. <1월 29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지난 17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시청자들과 함께 했는데 더 이상 황수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무척 아쉽고 허전하다. 그동안 차분하고 편안한 진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 준 황수경 아나운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4월 7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가족을 지켜라」

- 다양한 가족의 삶을 통해 부모와 자식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조명하는 드라마로 재미있게 보고 있다. 그런데 극 중에서 재희(정우진 역) 왼쪽 앞머리가 눈을 가려 보기 불편했다.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6월 5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도자기, 그림, 고서, 글씨, 민속품 등 의뢰품에서 세월 속에 묻혀있는 진품명품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 감정 위원이 해박한 설명으로 우리 고미술품의 진가를 확인해 주어 유익하다. 그런데 외국인 출연자가 가벼운 태도로 감정가를 책정하는 장면이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성격과 맞는 출연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 매주 빠짐없이 「걸어서 세계속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활기찬 주말의 아침을 보내는 시청자이다. 기존 남자 내레이션은 친근감 있고 편안했는데 프랑스 편에서 변경된 여자 내레이션은 음성이 매우 딱딱해 방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좀 더 친근감 있는 음성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 <11월 10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2015 연말 결선」

- 매주 각 지역을 찾아가 지역민들의 노래와 장기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2015 연말 결선으로 KBS홀에서 송해와 정지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였다. 정지원 아나운서가 밝고 정확한 음성으로 매끄럽게 진행해 주어 좋았는데, 의상이 너무 짧아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기 불편했다. 다양한 연령대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의상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란다. <12월 29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겨울철에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 필수 비타민의 종류와 올바른 섭취 방법, 비타민이 풍부한 건강 밥상에 대해 소개했다. 그런데 보조 진행자가 조리한 음식을 맛보며 찹찹거리는 소리를 내 시청하기 불편했다. 조리한 음식의 맛을 표현하기 위함이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비위생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앞으로 음식 섭취 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2월 6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평소 어렵고 지루하게만 생각해 오던 역사를 흥미진진한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재미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역사를 다루는 만큼 좀 더 차분하게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일부 출연자들이 너무 재미 위주로만 방송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고려해 주기 바란다. <11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지난해 적발된 아동학대가 처음으로 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어 보도되었는데 진행자가 '아동학대의 날'로 잘못 발언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1월 20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매주 수요일은 출연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청자들의 투표로 우승자를 결정하는 코너가 방송되고 있다. 대부분은 일반인이 출연하는데 25일(수)에는 가수 현자가 출연해 현재 노래교실 강사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출연자가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도 가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팬은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출연자의 인지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런 마음이 든다. 출연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3월 27일 보고서>

○ 2TV 「나를 돌아봐」

-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화가 나고,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마음가짐을 확실하고 간단하게 바꾸는 길은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이 되어 똑같이 겪어보는 방법뿐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겪어보며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제작되어 즐겨 시청했다. 그런데 제작발표회 등 출연자들 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또, 최민수가 외주제작사 PD를 폭행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방송 취지와는 어긋나서 아쉬운 마음이 든다. 출연자 섭외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8월 21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엄마가 없는 48시간 동안의 아빠들의 육아 도전을 다룬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12인실 병동에 입원해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온이네 가족을 좋아한다. 그런데 최근 지온이네 가족이 하차하여 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고 온순하고 귀여운 엄지손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계속 출연하도록 고려해 주기 바란다. <12월 4일 보고서>

○ 2TV 「600회 기획 비타민」

- 실생활에 밀접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건강 검색어를 통해 의사들의 건강법을 알아보았는데 유익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절대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 중 한약이 있었다. 하지만 한약은 음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의사들만 출연한 방송에서 해당 의견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차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10월 6일 보고서>

○ 2TV 「2015 프로야구」

- 한국시리즈 3차전 삼성 라이온즈 대 두산 베어스 경기가 중계방송 되었다. 그런데 해설위원이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발언하여 듣기 불편했다. 본인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현재 가뭄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발언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11월 2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1인과 100인의 문제 풀이 대결로 즐겨 시청한다. 대부분 1인 도전자로 2명이 출연하는데 간혹 도전자가 1명인 경우도 있다. 도전자가 1명일 경우 2명의 도전자가 출연할 때보다 진행자와 100인이 사담을 나누는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평소 문제풀이 과정에서 지식을 얻고 긴장감도 느낄 수 있는데 사담이 많은 경우엔 집중도가 떨어져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방송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줄여주기 바라며 퀴즈 프로그램인 만큼 조금 더 긴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개편 전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방송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편 이후에는 시청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많아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간혹 진행자나 출연자들이 듣기 거북한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주시청자가 주부들이다보니 딱딱한 것보다 편안한 느낌이 좋겠지만 시청하기 불편한 경우도 있다. 금일 방송에서도 남자 진행자가 여자 출연자에게 농담으로 "살을 빼세요."라고 했는데 자신의 몸매에 만족을 하지 못하거나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다소 거북한 표현일 수 있다. 진행자나 출연자 발언 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기 바란다. <3월 26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대한민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시즌1부터 현재 시즌3까지 즐겨보고 있는 시청자이다. 이날은 김주혁의 굿바이 특집으로 꾸며져 방송되었는데 앞으로 볼 수 없다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수고한 김주혁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2월 1일 보고서>

○ 2TV 월화 드라마 「너를 기억해」

- 잠재적 살인범 낙인이 찍힌 위험한 남자와, 그 남자를 스토킹하는 여자가 각자의 감정을 숨긴 채 함께 범죄를 해결하며 서로를 치유하는 로맨틱 스릴러이다. 드라마 특성상 촬영 장소가 대부분 수사 현장이나 경찰서이다. 그런데 경찰대 출신 경감 차지안(장나라 분)이 여러 개의 피어싱을 착용하여 배역과 맞지 않아 보였다. 상황에 맞게 소품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7월 30일 보고서>

○ 2TV 「KBS 글로벌24」

-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회장 제프 블래터가 지난 29일 5선에 성공하자, 유럽 축구 연맹과 남미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월드컵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여 이와 관련 내용이 방송됐다. 자료화면이 나온 후 진행자가 "유럽이 월드컵에서 빠진다. 사실 양꼬 없는 찌뽕이나 마찬가지로인데"라고 발언했는데 양꼬는 외래어로 '팔소'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일본식 표현을 삼가고 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6월 3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애절한 발라드부터 댄스곡까지 장르를 초월한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1세대 아이돌 god 전설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12년 만에 복귀한 god의 오프닝부터 6팀의 다양하고 화려한 무대가 매우 좋았다. 앞으로 1세대 아이돌 신화, 핑클, H.O.T 등도 볼 수 있기 바란다. <12월 15일 보고서>

○ 2TV 「2TV 아침」

-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일명 '서초 세 모녀 사건'을 다루며 진행자가 "본인만 죽으면 되지 왜 부인과 어린 두 딸을 살해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다. 세 모녀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겠지만 방송에 적합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감정에 앞선 발언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2TV 「출발 드림팀 시즌2」

- 신인 여자 아이돌 가수 100명과 드림팀 여자 선배 10명이 출연해 깃발 게임을 펼쳤다. 이 게임은 빠른 속도로 달려가 먼저 깃발을 잡으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게임에 참가하다 보니 다소 산만하게 느껴졌다. 또한 출연한 신인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대부분 인지도가 없다 보니 조금이라도 주목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여 안쓰러웠고 우리 연예계의 슬픈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했다. 패자부활전 '몽키레이스'는 두 손바닥을 바닥에 짚은 채 허리를 굽히고 원숭이처럼 기어가는 동작인데 여자가 하기에는 추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여 보기 좋지 않았다.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인 가수들을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는 좋았으나 출연 인원이나 게임 선정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 방송이었다. 우리나라 연예계는 높은 인지도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도 한다. 계속해서 유명한 연예인들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 가수 위주로 출연시켜 데뷔 무대의 길을 열어주고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3월 30일 보고서>

○ 1R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

- 2015년 개편으로 인해 진행자가 교체됐다. 기존에는 전문 방송인이 진행했으나 변경 후에는 대학교수가 진행자로 나서 방송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다.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부분이 시사, 경제 등으로 이루어져 다소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무거운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일수록 진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전문적인 진행으로 방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1R 「뉴스와 화제」

- 방금 들어온 소식이라며 주한 미국대사의 습격 사건을 전했다. 진행자가 주한 미국대사가 “괴한의 총격을 받았다.”라고 발언했다가 공격을 받았다고 정정했다. 잠깐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이번에도 동일한 사고가 난 것으로 오인해 매우 놀랐다. 단순한 실수도 방송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2R 「박철의 진지한 라디오」

- 「0시의 음악여행, 박철입니다」부터 즐겨 듣는 청취자다. 개편 이후 방송 시간대가 앞당겨져 좀 더 다양한 청취자들과 편안한 환경에서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진행자 박철의 특유의 입담과 에너지 넘치는 진행은 지친 삶에 활력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도 한다. 새로 신설된 「박철의 진지한 라디오」를 통해 풍부한 음악적 지식과 좋은 사연도 많이 소개해 줄 예정이라고 해 무척 기대가 된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진행자가 되길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위에」

- 2014. 12. 31.(수), 정세진 아나운서가 마지막 진행을 했다. 퇴직 후 쓸쓸했던 마음을 달래주던 프로그램으로 늘 방송시간을 기다렸다 청취하곤 했다. 특히 라디오에 잘 어울리는 정세진 아나운서의 음성이 크게 위로가 됐었는데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무척 아쉽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하루 빨리 만나볼 수 있길 바라며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월 5일 보고서>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2015년 개편으로 인해 진행자가 교체됐다. 부드럽고 차분한 진행자의 음성은 흘러나오는 전파로도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따뜻함이 느껴진다. 또한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접할 수 있어 앞으로의 방송이 더욱 기대된다. 퇴근길 좋은 음악과 진행자의 따뜻한 음성으로 마음까지 치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 평소 진행자의 모습처럼 청취자들에게도 편안하고 진솔하게 대해줘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진행 시,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자주한다. 짧은 시간 내 많은 청취자들의 사연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이겠지만 진행자의 급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초조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조금 더 편안하고 느슨한 진행으로 청취자들에게 다가와 주기 부탁드린다. <1월 6일 보고서>

○ 2FM 「조우종의 뮤직쇼」

- 2015년 개편과 함께 「조우종 뮤직쇼」가 방송되고 있다. 조우종 아나운서의 재치 넘치는 입담과 밝은 선곡은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시간에 활력을 준다. 매일 색다른 코너로 꾸며지는 두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다. 앞으로도 늘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아나운서가 되길 바라며 라디오도 오랫동안 진행해 주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5. 공정성 |

○ 1TV 「KBS 뉴스9(스포츠)」

- 14일(화) 치러진 프로야구 한화 VS 삼성의 경기 소식을 전했다. 프로야구 한화의 김성근 감독이 과거 SK시절부터 비디오 판독 도입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으나 오늘은 자신이 반대하던 비디오 판독을 1회부터 이용해 실점 위기를 넘겼다고 했다. 또한 삼성이 기회를 잡자 한화의 일본인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통역과 투수, 포수를 포함해 무려 5명이 의사소통을 하며 상대의 흐름을 끊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오심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당연히 비디오 판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외국인 선수와 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까지 맥을 끊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과거 삼성출신 선수인 권혁을 이승엽과 맞붙여 위기를 넘겼다고 하며 이를 김성근 식 독한 야구라고 했다. 좋은 경기를 위한 전략은 한화뿐 아니라 모든 프로야구팀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맥을 끊었다.', '김성근 식 독한 야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김성근 감독이 승리에 집착해 경기의 흐름을 끊고 상대 선수들을 자극시키기 위해 선수 배치를 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춰져 매우 불쾌하다. 프로야구에 관심이 없거나 김성근 감독에 대해 잘 모르는 시청자라면 해당 보도를 보고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 앞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4월 16일 보고서>

○ 1TV 「특집 좌담 위안부 합의, 한일관계 물꼬트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정부의 회담이 전격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를 섭외하여 위안부 합의의 의미와 평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좌담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방송을 보는 내내 중립적이지 못한 토론 내용으로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중립성 있는 패널들을 섭외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31일 보고서>

○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 신뢰할 수 없는 섬유 혼용률 표기와 아동복의 환경호르몬 검출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방송됐다. 면 100%라고 표기되어 있는 고가의 아동복에 합성섬유가 섞여있거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사례를 알려 경각심을 심어줬다. 특히 검출된 환경호르몬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해 성조숙증과 불임, 유방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 충격적이었다. 또한 아직 국내에는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아동복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해당 호르몬의 문제점과 의류업체 행태를 알렸을 뿐 소비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아쉬웠다. 앞으로는 문제점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선택 요령 등을 자세히 알려주기 바란다. <1월 27일 보고서>

○ 1R 「생방송 오늘 이상호입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화 전환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를 섭외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반대의 의견만 들을 수 있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송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차후 방송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9월 11일 보고서>

6. 사실성

○ 1TV 「ID 영상」

-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원정리 느티나무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자막으로 충청남도 보은군으로 잘못 표기되었다. 보은군은 충청북도에 속해 있는 지명이다. 자막 제작 시 실수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0월 1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문이 열린 채 차량이 출발하면서 어린이가 떨어졌는데 학원 측의 미숙한 대응으로 아이가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태권도 학원 차량', '학원'이라는 명칭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는데 태권도를 가르치는 곳은 '태권도 도장(道場)'이다. 또한 학원과 달리 종합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관리주체도 교육청이 아닌 구청이다. 시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서울시교육청의 특수 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거부해달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서울외고 학부모 3백여 명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결정에 동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방송 화면 자막에 '자사고 서울외고 지정취소'로 잘못 표기됐다. 서울외고는 특목고로 자사고로 표기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자막 제작 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7월 13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

- 고등학생 대상 퀴즈 프로그램으로 각종 일반 상식이나 시사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45번 음악 문제에서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인데 모차르트 연주곡 중 일부라고 방송되었다. 학생들과 다양한 연령대가 시청하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10월 27일 보고서>

○ 1TV 「뿌리깊은 미래 (스팟)」

- 1954년 6월, 독도 동도바위벽에 '한국령(韓國領)'이라는 문구를 새긴 독도 의용수비대 홍순철 대장. 영상을 통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독도 의용수비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내용 중,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이 '수류탄, M16, M1, 박격포'를 개인 돈으로 마련했다는 부분이 있다. 'M16'은 1957년경 개발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경부터 사용됐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방송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월 2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5년 만인 오는 20일에 내려진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에 기소되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업체명이 한신공영으로 잘못 보도되었다. 한신건영이 맞는 업체이니 오류 없이 보도해 주기 바란다. <8월 19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축구를 하는 남자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자 연예인 축구하면은 민호는 남자답고 (시아)준수 멋있는데 이덕화는 뺨도 뺨도”라고 했다. 그런데 시아준수의 시아는 묵음 처리되고 준수라는 이름만 희미하게만 들렸다. 김준수는 JYJ로 활동하면서 동방신기 시절 쓰던 예명 ‘시아준수’와 ‘시아’ 등을 본명과 같이 쓰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도 아니고 버젓이 사진까지 방송에 내보내면서 이름을 묵음 처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JYJ가 공중파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진 않은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또한 이는 김준수는 물론 그의 팬들에게까지도 상처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제작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4월 28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중국에서 별세한故 이맹희 CJ 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국내로 운구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빈소를 찾았다. 이번 조문을 계기로 삼성가와 CJ 가문 간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범 삼성가 가계도를 자료화면으로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는데, ‘姑 이병철, 姑 이창희’로 한자가 잘못 표기되었다. 정확한 한자로 표기해 주기 바란다. <8월 19일 보고서>

○ 2TV 「위기탈출 넘버원」

- 본인은 소방관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5일, 방송에서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법과 보관법을 소개했다. 사용 가능 했수가 지난 소화기는 위험하다며 “주변에 8년 이상 된 소화기가 있다면 가까운 소방서 소화기 지원센터로 연락해 회수 후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내레이션 및 자막이 표기됐다. 방송이 나간 뒤 소방서로 회수와 교체를 해달라는 문의가 빗발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회수한 뒤 폐기처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시청자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모호한 표현보다는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줬다면 좋았을 것이다. <1월 8일 보고서>

○ 2TV 「비타민」

- 자주 사용하는 치약의 성분과 유해성,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방송했다. 가족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심 있게 시청했다. 방송 중 유해성분이 들어간 치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해봤지만 제품 목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전화로 확인해 봤지만 유해 제품을 목록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검수를 거쳐 실제와 다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2월 16일 보고서>

○ 1R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

-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개시 88주년을 맞아 라디오의 숨은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TV 시대가 시작되면서 라디오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미디어로의 기능과 음악을 비롯해 종교까지 문화 중심 매체로 발돋움하며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의 사례도 함께 소개하며 독일의 경우 나치 시대에 라디오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청취료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소개해 흥미로웠다. 그런데 방송 중 최초로 상업방송이 시작된 시기가 1961년 12월 부산 문화방송이라고 했다. 부산 문화방송은 1959년에 최초로 상업방송을 개국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7. 프로그램 호평 |

○ 1TV 「2015 K리그 클래식」

-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FC 서울의 중계방송을 시청했다. 경기 시작 전 짚어준 관전 포인트나 선수들의 활약상 등을 미리 설명해 줘 시청자들이 경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골을 넣는 장면이나 유효한 슈팅 장면 때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줘 현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이외에도 선수들을 밀착해서 보여주는 카메라 기법이나 경기장 위에서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볼 수 있는 특수한 촬영기법(지라프 헤드) 등 KBS가 보유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준 높은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수준 높은 중계방송으로 시청자들의 흥미와 몰입을 높여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4월 21일 보고서>

○ 1TV 「성탄 특집 KBS 다큐 1 일사각오 주기철」

- 3·1운동에 참가한 후 목사로 활동하며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을 계속하다 1938년 일본 경찰에게 검거되어 복역 중 옥사한 목사이자 독립운동가 주기철에 대해 방송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기철의 일대기를 재구성하여 오롯이 '일사각오'의 길을 걸어간 그의 생애를 재조명하였는데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어 보기 좋았다.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기에도 매우 유익했다. 주기철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좋은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2월 28일 보고서>

○ 1TV 「2015 K리그 클래식」

- 3월 7일(토)부터 2015 K리그 클래식 경기가 시작됐다. KBS에서는 개막경기에 이어 K리그 클래식 경기를 월 2회 지속적으로 중계해준다고 해 매우 반가웠다. 그동안 K리그 개막 경기나 국제 경기 외에는 K리그 중계가 이뤄지지 않아 축구 팬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컸는데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 K리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월드컵 시즌에만 축구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중계방송으로 국내 축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준 KBS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K리그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양질의 중계방송 제공에 힘써주기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1TV 「한국방송88년 공사창립42주년 특집 이미지 장사익의 아주 특별한 만남」

- 지난 2월 10일(화), KBS홀에서 진행했던「한국방송88년 공사창립42주년 특집 이미지 장사익의 아주 특별한 만남」을 방송했다. 평소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던 무대로 콘서트 당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TV로 시청할 수 있어 반가웠다. 데뷔 이후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며 국민가수로 불리는 이미지와 전통 소리와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장사익의 신명나는 합동 무대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특별한 무대를 통해 시청자가 한국방송의 공사창립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줘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주기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1TV 추석특선영화「패딩턴」

- 폭풍우에 가족을 잃고 페루에서 영국까지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 곰의 특별한 여행기를 다룬 영화이다. 매력적인 곰들이 출연하여 유쾌하고 감동적이었고 더빙으로 방영해 주어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기에 좋았다. 더빙으로 된 영화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데,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에 편성해 주어 감사하다. <10월 1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 8월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뜻 깊은 광복 70년을 맞이해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즐긴 국민 대합창 '나는 대한민국'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연아합창단, 1945합창단과 아침합창단 등이 선보인 무대는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7만 명이 넘는 관객들과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과 애국가는 시청자들도 한마음이 되어 따라 부르게 되고 가슴 뭉클한 큰 감동을 주었다.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느라 고생한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8월 17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가정의 달 기획 특집으로 효(孝)를 주제로 한 극장식 쇼가 방송됐다. 국악과 트로트, 동춘 서커스와 콩트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로 방송을 보는 내내 눈과 귀가 즐거웠다. 이제는 거의 사라져서 접하기 힘든 동춘 서커스의 현란한 묘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낼 만큼 감탄을 연발케 했다. 특히 '내 사랑 순선씨'에서는 93세의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기삼씨가 나와 노모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해 진정한 효심을 느낄 수 있었고 방송을 보는 본인도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시기적절한 무대를 마련해 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5월 13일 보고서>

○ 1TV 「해외걸작다큐멘터리」

-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영국 병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로 전쟁의 잔혹함과 그 안에 휩쓸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 주었다. 마치 영화 같은 다큐 프로그램으로 세계 1차 대전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해외 다큐를 많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7월 6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의학박사 홍혜걸이 출연해 건강검진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CT나 PET 기기 등을 이용한 건강검진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촬영 기기들은 비용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방사능 노출에 우려가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도 정확한 검진이 가능한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조건 규모가 큰 병원을 찾거나 인터넷, 언론에 노출이 많은 전문의를 선호하기보다 가까운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빠른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상세한 설명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될 것이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쉽고 빠르게 전파되어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방법이며 유익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건강에 대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선택법이나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 강연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월 16일 보고서>

○ 1TV 「특집 다큐 을미사변 120년, 명성황후를 다시 보다」

-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 난지 120년이 되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을미사변 120년, 명성황후에 대해 방송되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다.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웠던 내용 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1월 30일 보고서>

○ 1TV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

- 다양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했다. 출연진들과 인순이의 매끄러운 진행은 방송에 더욱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어 즐겨 시청했다. 시청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 좋았다. <6월 26일 보고서>

○ 2TV 「출발 드림팀 시즌2」

- 어린이날 특집으로 아빠와 아이가 힘을 합쳐 장애물을 넘는 수상경기를 펼쳤다. 평소 드림팀의 경기 난이도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아빠와 아이가 힘과 지혜를 모아 장애물을 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본인의 기분도 좋아졌다. 또 완주를 하지 못해 서운해 하는 아이들의 솔직한 반응은 치열했던 성인들의 경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모습이었다.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매우 시기적절한 내용이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에도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5월 6일 보고서>

○ 2TV 수목 드라마 「어셈블리」

- 국회를 배경으로 현실적인 오늘날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 즐겨 시청했는데 증명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매회 울고 웃으며 진한 감동을 선사해준 배우들의 명품 연기력은 신랄한 비판에서부터 가슴 뭉클한 감정까지 시청자에게 전달해 주어 보는 재미를 더해주었다. 또, 난해한 정치를 쉽게 풀어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해주어 여운이 오래 남을 것 같다.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9월 21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그동안 육아에 소홀했던 아빠들의 육아 도전기를 다룬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삼둥이와 사랑이, 유토가 서당에서 1박 2일 동안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천자문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견스러웠다. 또, 존댓말의 중요성과 식사 예절 등 아이들에게 교육해주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예절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기에 유익했다. 한국 문화와 전통예절을 알려주는 좋은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8월 20일 보고서>

○ 2TV 「프로듀사」

-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관한 갈등과 애환을 코믹하게 담아낸 드라마다. 실제 방송에서 진행되는 예능 인기 프로그램을 소재로 해서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재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 4명의 탄탄한 연기력이 뒷받침되어 더 보기 좋았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하겠다. <6월 15일 보고서>

○ 2TV 「추적 60분」

- 패션업계의 노동력 착취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젊은 청년들은 인턴이라는 명목 하에 최저임금 이하의 조건을 강요받고 있었다. 이들은 밤샘과 허드렛일에 시달리면서도 경험을 쌓기 위한 일종의 수순이라고 생각하며 희생당하고 있었다. 방송을 보며 청년들의 열정을 귀하게 여겨주지 못하는 사회가 개탄스러웠다. 경기불황으로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시기적절한 내용이 방송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다. <3월 10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 「부탁해요, 엄마」

- 주말 저녁시간대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이다. 짠한 모녀간의 애증 이야기를 다루어 같은 여자로서 공감의 때가 많다. 특히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은 보는 재미를 더해 준다. 가족의 따뜻함과 엄마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2월 21일 보고서>

○ 2TV 주말 연속극「가족끼리 왜 이래」

- 아버지 차순봉(유동근 분)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식들이 이야기를 담아내며 유종의 미를 장식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인 가족노래자랑을 개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는 최백호의 '길 위에서'를 부르며 시한부로서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해 보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웃음과 감동으로 전한 훌륭한 드라마였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가족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의 비애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내용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귀감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악역이나 막장 요소가 없어도 충분히 시청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연기와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월 17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고전 '동의보감' 속에 담겨진 조상들의 지혜와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을 통해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의학 서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 매우 놀라웠다. 또한 '동의보감'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증상과 치료 방법을 알려주고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병에 대한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고전이라고 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강조한 고전으로 여성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책으로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현대의학에 발맞춘 변화를 적절하게 해석해줘 무척 유익했다.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며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에 대한 자부심과 고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좋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아침시간대를 편안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월 4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멤버들이 친한 여자 친구와 강원도 춘천으로 떠나는 두근두근 우정여행 특집 두 번째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기존에는 다소 진부한 느낌이 들었으나 예능에서 쉽게 보지 못 했던 출연진이 섭외되어 신선한 재미가 있었다. 특히 출연진 모두 꾸밈없이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어 좋았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으로 시청자와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6월 24일 보고서>

○ 2TV 「연작다큐 단짝」

-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작은 목장에서 일하는 혜경씨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백구 매향이의 일상을 방송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반려견 매향이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살뜰히 챙기는 출연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출연자는 가업을 잇기 위해 목장 일을 시작했고 힘들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반려견에게 의지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주인에게 버려지는 유기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동물사랑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인간과 반려견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2월 23일 보고서>

○ 2TV 「우리동네 예체능」

- 예체능 멤버들과 제3군수지원사령부 삼마부대 군인들과의 족구 대결을 방송했다. 젊음과 패기로 뚝뚝 뭉친 삼마부대 군인들은 예체능 족구단을 기선제압하고 승리했다. 두 팀 간의 실력 차이가 커서 긴장감은 다소 떨어졌지만 강팀과의 대결로 인해 심기일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항상 신선한 대결로 즐거움을 주는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프로그램으로 장수하길 바란다. <3월 12일 보고서>

○ 1R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

- 도서와 그림, 역사 속의 숨은 인문학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전문학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경제 지식, 미술작품 등에 내포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어 일상생활에서 풍부한 지식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매회 심도 있는 해설로 인문학에 대한 공감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준 KBS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6월 9일 보고서>

○ 1R 「책 읽는 밤」

- 그동안 신간을 비롯해 좋은 책의 내용과 그 안에 담긴 의미, 배경 등을 소개해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이상협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한 '시가 오는 시간'은 시의 매력과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제작진과 진행자, 출연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추후 개편 시 「책 읽는 밤」 시즌 2를 신설해 책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1R 「주말 뉴스 매거진 김진원입니다」

- 일주일간 있었던 사회, 경제, 정치 문제를 간략하고 정확하게 소개해줘 즐겨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정보이외에도 여성들이 관심 있어 하는 생활정보, 건강 상식까지 알려줘 유익하다. 현대인들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처럼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청취자들을 배려해 다양한 시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2월 3일 보고서>

○ 3R 「연속낭독」

- 한 권의 책을 선정해 낭독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성우의 차분한 목소리 덕에 책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간혹 소개된 책을 구입해 읽어보면서 책의 내용을 그려보기도 하고 청취하며 놓쳤던 부분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 방송을 들으면서 책에 대한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해 준 제작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회가 된다면 김병완의 '초의식 독서법'을 낭독해 독서의 필요성을 알리고 우리에게 맞는 독서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세상의 모든 음악」을 즐겨 청취한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감성이 풍부해지는 기분이다. 본인과 같은 평범한 청취자들의 사연에 공감하고 때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진행자 전기현의 부드럽고 편안한 음성 덕에 복잡한 퇴근길에 여유를 찾게 해준다.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을 통해 청취자들의 내면을 달래주고 활력을 주는 휴식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함께 하길 바란다. <3월 20일 보고서>

○ 한민족R 「세월따라 노래따라」

- 본인은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평소 운행 중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다른 청취자들의 사연에 공감하기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본인의 경우 새벽 시간에 운전을 하는 날이 많은데 「세월따라 노래따라」에서 들려주는 옛 노래를 들으면 졸음이 달아나기도 한다. 특히 진행자 송영길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친근감 있는 진행은 청취자로 하여금 정겨움을 느끼게 한다. 이른 새벽시간에도 청취자들에게 좋은 음악과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작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3월 11일 보고서>

| 8. 표현(소재) |

○ 1TV 「특집다큐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

-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추가 테러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무슬림을 미화시키는 내용이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차후 방송 제작 시에는 방송 시점을 고려해 주고 무슬림에 대해 편중되지 않은 측면으로 방송되면 좋을 것 같다. <12월 15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 광복 70년을 맞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민대합창은 지난 180일간의 여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해방동이합창단, 연아합창단, 아침합창단 등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가 좋았다. 그런데 실제 공연에서는 김연아만 노래하는 모습으로 보여 높은 경쟁률로 합격한 20대 합창 단원들은 코러스 역할로 비추어져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또, 선곡된 노래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좋았지만, 다소 젊은 세대들만 공감할 수 있는 출연자와 노래로 구성되어 아쉬웠다. 국민대합창이라는 취지에 맞는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무대가 꾸며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후 제작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8월 1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입관식이 거행되었다. 국가장인 만큼 방송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 같다. 그런데 모자이크 없이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 우리나라 정서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이러한 장면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1월 25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바쁜 현대인들의 비타민 섭취와 관련하여 '비타민제 먹을 것인가 VS 말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실제로 문자, 티벳,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받아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좋았다. 그런데 매번 방송참여 방법에 대해 초반에 한번만 언급되어 중간에 보는 시청자의 경우 의견을 낼 수 없어 답답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 화면에 자막으로 계속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방송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인 만큼 개선해 주기 바란다. <9월 24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출연자가 정약용과 정약전의 유배지를 '토끼 꼬리'라고 표현했다. 정약용이 처음 유배를 떠난 곳은 '경상북도 장기현'이며 현재 위치로 말하면 경상북도 포항시의 호미곶(虎尾串)이다. 호미곶(虎尾串)은 '토끼 꼬리'가 아닌 호랑이 꼬리'를 의미한다. 호미곶을 '토끼 꼬리'로 표현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이다.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전문가로 출연한 사람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만큼 실망스럽다.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5월 7일 보고서>

○ **1TV 광복 70년 미래 30년「오늘 미래를 만나다」**

- 평소 만나기 어려운 저명한 인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세계 최대 전자결제 회사인 페이팔(PayPal)의 창업자인 피터 툴(Peter Thiel)은 경쟁업체가 많은 사업에서 전에 없던 제품이나 서비스로 유일한 존재가 되라며 독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줘 신선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연 내용을 우리말로 자막 표기해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런데 자막의 위치가 자주 변경돼 자막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자막 위치는 한 곳에 고정해주기 바라며 시청자들이 강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가급적 더빙이나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3월 10일 보고서>

○ **1TV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어 유심히 방송을 시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가 출연하여 자폐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알려 주고 실제 사례를 보여주어 좋았다. 그런데 해결방안이 없이 방송이 끝나 아쉬웠다. 치료방법이나 정부 지원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같이 제시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6월 23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현재 초미세먼지의 실내 기준치가 없어 지하 공간과 다중 이용시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을 측정 결과를 통해 알려주었다. 그리고 지하 공간 초미세먼지의 온상인 지하 터널 청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도 방송되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일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다.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 근본적인 원인이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아 조금 아쉬웠다. 방송을 통해 시청자가 느끼고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6월 2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7」**

- 만취한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경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한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차량이 외제차이고 앞차가 경차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마치 외제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이 경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 또한 외제차 운전자들에 대해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만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 4명이나 숨졌다는 내용이 핵심이므로 사건의 본질만 정확히 전달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2월 5일 보고서>

○ **1TV 「광복70년 경축 전야제」**

- 8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한 「광복70년 경축 전야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지난 70년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다 같이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연을 통해 광복절다운 축제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잘 살아보세', '아리랑', '비목' 등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그런데 '비목'은 전쟁의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였는데, 전쟁의 여운을 보여주는 엄숙한 곡의 의미와는 다르게 중간에 랩이 구성되어 아쉬웠다. 차후 제작 시에는 참고해 주기 바란다. <8월 18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매달 말일에는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사연과 신청곡을 방송해 주어 우리 이웃들의 따뜻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수 있어 더 좋은 시간이다. 신청자의 이름과 사연을 자막으로 소개해 주는데, 자막이 빨리 지나가 사연을 보기 어려워 아쉬웠다. 본인처럼 나이가 많은 시청자를 배려해 자막이 화면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주기 바란다. <12월 2일 보고서>

○ 2TV 「두근두근 인도」

-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6명이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낯선 땅에 가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20대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내용으로 2월 2일(월)에 인도로 출국해 촬영을 진행한다고 한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발생했으며 외교부에서 지정한 일부 황색경보 국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관광지는 '여행유의'인 남색 경보지만 15개 주는 '여행자제' 지역이다. KBS 홍보실 보도 자료를 통해 제작진이 안전 확인을 포함한 모든 답사를 마친 상태라는 내용을 접했으나 현지답사만으로 완전한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 방송날짜도 미정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는 시기에 촬영을 해도 될 것이다. 단순히 연예인을 아끼는 팬으로써가 아닌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임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사둥이는 아빠 딸' 코너에서는 아빠가 딸에게 새해 목표를 묻는 장면이 나왔다. 딸 역할로 나오는 개그우먼 김승혜가 "꼭 김치 먹는데 성공해서 김치녀가 되겠다."고 하며 "오빠 나 명품백 사줘. 아니면 신상 구두."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나왔다. '김치녀'는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우리나라 여성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남성에게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 방송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11일(일) 첫 방송된 '부영이' 코너에서는 산 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으로 출연하는 개그맨 장유환이 부영이로부터 길 안내를 받던 중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개그맨 이상구가 "재는 못 나나봐."라고 발언하고 박쥐 분장을 한 개그맨 박성호는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진 저 사람의 기분을 내가 알 것 같아."라고 말했다. 부영이와 낭떠러지, 즉 이러한 설정은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을 등반하던 중 부영이 바위에서 투신한 사건이 떠올라 시청하기 불쾌했다. 부영이는 '일베(일간베스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동물로 유희거리로 사용되며 추락사와 맞물려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베(일간베스트)'는 극우 성향의 정치색, 소수자에 대한 비하, 막장 문화로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이러한 매체에서 유희거리로 사용되는 소재를 개그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편집을 거쳐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인터넷 용어 사용에 신중하기 바라며 방송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재 선정 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1월 13일 보고서>

○ 2TV 「위기탈출 넘버원」

- 본인은 횡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3월, 고래회충 보도로 인해 현재까지도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이후 여러 차례 고래회충 안전성에 대한 방송이 되어 국민들이 양식 어류 등에 대한 안전함을 믿고 다시 횡집을 찾고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이번 「위기탈출 넘버원」 방송으로 인해 또다시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방송에서는 생선의 내장과 아가미, 실제 사례자의 복부 내시경 영상에서 꿈틀거리는 고래회충의 모습이 수차례 나왔고 이 모습은 횡집을 하고 있는 본인이 보기도 생선회를 먹기 겁날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다. 고래회충 파문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함이였겠지만 자극적인 영상으로 오히려 생선회에 대한 거부감만 더해졌다. 동일 내용이 재방송으로 편성돼 본인과 같은 영세사업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거부감이 느껴질 만한 장면은 화면효과 처리 후 방송해 주기 바란다. <4월 29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그룹 EXO 컴백 무대를 알리는 시간에 멤버들의 개인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마지막 단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총 9명의 멤버 중 레이의 개인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는 출연자이더라도 그룹의 경우 모두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2월 15일 보고서>

○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아내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연예인 아빠의 육아도전기를 다룬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다. 그런데 방송 내용 중에 이동국이 막내아들을 위해 쌀 튀밥으로 간이 풀장을 만들어 주는 장면이 보기 불편했다. 아이들에게 축감놀이는 오감발달에 좋지만,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모습은 아쉬웠다. 앞으로는 신경 써 방송해 주기 바란다. <10월 6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흑한기 영양 섭취 능력테스트를 했다. 테스트 종목 중 강풍기 앞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람에 라면이 날라 갔다. 그런데 먹는 음식을 재미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 같아 매우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다른 소재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1월 24일 보고서>

○ 2TV 「용감한 가족」

- 여섯 명의 출연자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활에 적응해 가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느껴졌으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물건 값을 깎는 모습이 자주 연출된다. 어느 정도 물건 값을 흥정하는 것은 재미를 위해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되나 과하게 덤을 요구하거나 무조건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방송을 본 관광객들이 캄보디아 방문 시 비슷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다소 과하게 여겨질 수 있는 연출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 「후아유 - 학교 2015」

- 「학교」 시리즈는 이미 KBS의 대표 드라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은 현실속의 교실 풍경이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과 비슷한 모습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했기에 방송 전부터 새로운 시리즈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첫 회 방송부터 생일을 맞은 친구를 축하해 준다는 이유로 계란과 밀가루, 까나리 액젓을 부어 인간 케이크를 만드는 등 다소 자극적인 장면이 방송돼 눈살이 찌푸려졌다. 또한 방송을 보고 똑같은 방법으로 학우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생겨나진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시청자들이 자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 연출은 자제해 주기 바람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드라마로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30일 보고서>

○ 2TV 「우리동네 예체능」

- 「우리동네 예체능」에서는 유독 자막이 많이 등장한다. 경기의 룰이나 용어를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출연자들의 멘트까지 자막으로 처리해 주고 있어 산만하게 느껴진다. 또한 자막의 위치도 화면 왼쪽, 오른쪽, 중앙 등으로 계속 변경돼 시선이 자막을 따라가다 보면 경기장면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의 한 요소로 자막을 사용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자막 노출은 방송에 몰입을 저해한다. 방송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막 표기 횟수를 적절히 조정해 주기 바란다. <4월 9일 보고서>

| 9. 간접광고 |

○ 2TV 「2015 프로야구」

-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개막전 경기를 중계했다. 그래픽 화면을 통해 경기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시청하기 편했다. 그런데 타자 교체 시 캠버스 백이나 글러브 등이 전체 화면으로 보임과 동시에 화면 하단에는 광고가 나와 다음 타자가 누구인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다. 음성으로 다음 타자에 대한 안내가 나오긴 하지만 선수들이나 구장의 모습이 아닌 광고로 전면을 다 할애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기 실황을 보여주는 만큼 경기와 무관한 광고 등으로 화면 전체가 할애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4월 1일 보고서>

○ 2TV 「체인지업 도시탈출」

-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출연자가 순창의 명물인 고추장을 맛보기 위해 여행객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그런데 특정 업체명이 그대로 나와 간접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일부 화면효과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업체명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다. 앞으로는 특정 업체가 홍보로 비춰지지 않도록 화면효과 처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K플레이어 광고방송」

- 본인은 평소 K플레이어를 통해 실시간 뉴스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5월 14일(목) 오전 시간에 K플레이어 서비스로 아이와 함께 방송을 보는 도중 갑자기 맥주 광고가 나와 당황스럽고 시청하기 불편했다. 방송 심의 규정상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심야시간 외에는 음주 광고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낮 시간에는 특히 광고 편성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 <5월 18일 보고서>

| 10. 언어 |

○ 1TV 「KBS 뉴스라인」

- 메르스로 인한 2명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휴업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뉴스에서 방송된 내용 중 잘못된 표현이 있다. "학교 휴업 잇따라... 수락여행도 취소"라고 방송되었는데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휴업이 아닌 휴교가 맞는 것 같다. 정확한 표현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6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라인」

- 남미 칠레 연안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하와이와 일본까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쓰나미'는 일본어로 '해일'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9월 2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경기도 의회에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반값 복비' 조례가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법제처에서는 부동산 중개의 수수료를 '중개 보수'로 사용하도록 정한 바 있다. 앞으로 '복비'나 '중개 수수료'가 아닌 '중개 보수'로 사용해 주기 바란다. <3월 2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일기예보를 시작하면서 기상 캐스터 이름이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름 옆에 Weather caster라고 나온다. 기상 진행자로 풀이하여 사용하거나 이름만 자막으로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 KBS는 공영방송인 만큼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6월 26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

-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인 '리히터'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며 "규모 7.0 땡땡땡 발생했습니다."라는 힌트를 줬다. '땡땡땡'은 점(點)의 일본식 표현으로 우리말로는 '빈칸', '이것'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방송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방송에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2TV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 정철복(윤지옥 분)이 춘자(심진화 분) 얼굴에 상처가 난 모습을 보며 기스가 났다고 표현했는데 듣기 불편했다. 기스는 일본어로 흠이나 흠집으로 순화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말 표현에 앞장 서주기 바란다. <12월 10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책을 제대로 읽고 느낄 수 있는 '슬로 리딩'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화의 속도가 독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과거에는 속독법이 유행할 만큼 책을 빨리, 많이 읽은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읽는 행위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느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양으로 따지기보다 어떻게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시대이며 책을 읽고 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생각과 현실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방송 주제에 '슬로 리딩'이라는 영어를 사용한 것이다. 천천히 읽거나 정독, 느리게 읽기 등으로 표현해도 방송 주제에 대한 의도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2TV 「비타민」

- 100세 시대에 가장 두려운 병 중 하나로 꼽히는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 자가 테스트 방법을 소개했다. 출연자 중 한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치매에 취약한 유형을 추측하게 하는 장면에서 '도찐개찐'이라는 자막이 나왔다. 별반 차이가 없다거나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비슷비슷하여 견주어 볼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은 '도긴개긴'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2TV 「우리동네 예체능」

- 자막으로 방송 주제를 '리벤지 매치'라고 표기해줬는데 뜻을 알 수 없어 답답했다. 사전을 검색해 본 후에야 '리벤지(revenge)'가 스포츠 경기에서의 설욕으로 직역돼 복수전이나 설욕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2TV 「해피 투게더」

- 농구선수 출신의 석주일이 출연해 본인의 사업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뉘지 집'이라는 자막이 나왔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만 방송에 '뉘지 집'이라고 나오니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헛갈렸다. 신조어나 줄임말 사용으로 우리말을 정확히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 방송에서라도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2TV 「스타일 포 유」

- 한류를 대표하는 아이돌 가수 4명의 평소 옷차림을 점검하고 직접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들이 입은 옷차림의 색상과 모양 등을 자막으로 표기했는데 주로 외국어로 이뤄진 단어였다. 대부분 패션업계에서 쓰는 전문 단어인데다 외국어로 이뤄져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시대가 변하면서 신조어나 줄임말, 외국어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패션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전하는 부문이기도 해 우리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말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영방송인 만큼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라며 꼭 외국어로 표기해야한다면 우리말 해석을 함께 표기해 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2TV 「2TV 아침」

- 지구촌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알아보는 코너로 필리핀의 최고 휴양지 보라카이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그런데 리포터가 레포츠에 대해 설명해 주며 '익사이팅', '핫플레이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 주기 바란다. <11월 25일 보고서>

○ 1R 「행복한 시니어」

- 남은 식재료를 활용해 요리에 쓰이는 기본 국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진행자가 멸치국물 조리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시'는 일본식 표현으로 우리말로 '맛국물'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일본식 표현을 삼가고 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2월 6일 보고서>

○ 우리말 사용

- 요즘 일상생활뿐 아니라 TV에서도 외국어 사용이 자연스러울 정도가 되었다.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말로 해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한 부분까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국회에서도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기 위해 회의장 내부의 국회 상징 표지를 기존의 한자 '國'에서 한글 '국회'로 교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KBS는 우리나라의 대표 방송사인 만큼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우수한 한글 사용에 모범을 보이도록 해 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법정계량 단위 사용

-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관련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대부분 단위를 1배럴(bbl)로 알려주고 있는데 배럴(bbl)은 국내에서 쓰는 법정계량 단위가 아니다. 또한 시청자들이 인식하기에도 배럴(bbl)보다는 리터(ℓ)가 훨씬 체감하기 쉬울 것이다. 국제 유가를 다루기 때문에 단위를 배럴(bbl)로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국내에 전해지는 소식인 만큼 법정계량 단위인 리터(ℓ)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1월 13일 보고서>

○ 공식 명칭 사용

-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주택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소식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중개보수'를 '중개수수료'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법제처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29일(화)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변경했다. 앞으로는 개정된 용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11. 장애인/차별 |

○ 1TV 「아침마당」

- 수요일에는 전국 이야기 대회 '내 말 좀 들어봐'가 방송된다. 역경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부터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와 묶은 갈등, 그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깨친 수많은 노하우들까지 시청자들의 이야기 경연 대회이다. '반지하에서 피어난 꿈'을 주제로 말한 출연자의 이야기는 감동적이고 좋았다. 그런데 하반기 신경계 이상으로 다리가 불편한 출연자가 계속 서서 방송되는 부분은 보기에 안쓰러웠다. 다른 출연자와는 다르게 무대로 이동하는 동선을 줄여주어 좋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송이 되기 바란다. <6월 11일 보고서>

| 12. 일기예보 |

○ 1TV 일기예보 제언

- 미세먼지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많아 장시간 노출 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추운 날씨로 인해 한동안 미세먼지 소식 없이 겨울을 지내나 했는데 최근 들어 공기가 탁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일기예보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위주로 방송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농도에 관계없이 사람에게 따라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평상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기예보 시 미세먼지 등급별 행동요령을 상세히 알려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1R 「뉴스와 화제」

- 라디오 종합 뉴스 프로그램으로 주요 사건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알려주어 출근시간대에 즐겨 듣고 있다. 특히 해설위원들의 깊이 있는 해설과 논평은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일기예보 코너에서 오늘의 현재 온도를 알려주지 않아 조금 아쉽다. 출근시간이라 현재 온도를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6월 4일 보고서>

| 13. 방송품질 |

○ 1TV 「3.1절 특집 김마리아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다」

-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로 한 평생을 걸어온 김마리아의 삶을 조명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여성운동가의 삶을 통해 3.1절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과거를 재연한 장면에서 태극기의 건·곤·감·리 4괘 중 '리'와 '곤'의 모양이 동일하게 그려져 있었다. 국기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 만큼 소품 제작에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다. <3월 6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광복 70주년, 가요무대 30년 특집으로 남인수와 백년설을 기리는 내용으로 방송되었다. 생전의 명곡을 여러 가수들을 통해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남인수와 백년설의 모습이 사진으로만 나와 아쉬웠다. 노래하는 공연이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상을 함께 보여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후 방송 시에는 영상도 고려해 주기 바란다. <9월 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신문사별로 이슈가 되는 기사를 요약하여 알려주는 코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기자가 신문 기사를 설명해줄 때 나오는 배경음악이 방송에 집중하기 어렵다. 배경음악 소리를 조금 줄여주거나 없애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방송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11월 12일 보고서>

○ 2TV 「추적 60분」

- 기존에는 진행자 혼자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던 방식이었는데 4. 18.(토)부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좌담 형식으로 방송됐다. 그런데 카메라가 전문가들을 비출 때, 출연자를 작게 잡았다가 크게 잡았다가 하는 등의 화면 전환이 잦아 방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발언을 하는 당사자에게 카메라가 고정되지 않고 다른 출연자들의 얼굴을 번갈아가면서 비추거나 출연자의 앞 모습과 옆모습 등 이동이 잦아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앞으로는 잦은 화면 전환으로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4월 28일 보고서>

○ 2R 「임백천의 라디오 7080」

- 5일(일), 13시 26분경부터 진행자의 멘트와 노래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현상이 약 4분가량 이어졌다. 그런데 해당 부분에 대한 양해 멘트도 없이 방송이 끝나 당황스러웠다. 본인 기기에만 문제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 콩 게시판에 접속해보니 많은 청취자들의 항의가 있었다. 앞으로는 청취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방송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짧게라도 양해 멘트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1FM 「명연주 명음반」

- 평소 93.1MHz를 즐겨듣는 청취자이다. 그런데 본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고 잡음이 심하여 듣기 불편했다. 주파수 공사로 인한 문제라고 진행자가 알려주었는데, 불편 없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9월 22일 보고서>

14. 난시청

○ 2TV 「KBS 글로벌24」

- 본인은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 DMB로 TV를 시청한다. 그런데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KBS 글로벌24」는 DMB로 방송되지 않는다.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가 가능하긴 하지만 매번 홈페이지를 접속해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 최신 국제 뉴스와 속보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DMB 편성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3월 27일 보고서>

○ TV 공시청시설 기술 교육

- 본인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로 TV 공시청시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곤란하던 차에 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교육계획이 있음을 접하고 교육을 신청했다. 수원 KBS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TV 공시청시설의 관리와 설치에 대한 이론과 실습 강의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수신 기술 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었다. 사흘간의 교육으로 많은 기술적 지식을 습득해 앞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내 TV 공시청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수신기술과 더불어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준 KBS에 감사드리며 열과 성을 다해 준 강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4월 29일 보고서>

| 15. 시청자 참여 |

○ 1TV 「전국노래자랑」

- 2015 연말결선이 KBS홀에서 진행되어 방청예약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확인했다.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여서 전화를 시도했는데 계속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했다. 선착순 접수의 경우 여러 대의 전화로 접수받거나 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받으면 좋을 것 같다. 차후 진행 시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12월 1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했다. 본인은 15일 방청을 신청했는데 1월 1일과 1월 14일 방청에 당첨됐다는 문자가 왔다. 시청자상담실로 확인해 보니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정정된 내용이 다시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받은 문자에서야 본인이 신청한 날짜에 방청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본인 외에도 잘못된 문자를 받고 당황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시청자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작은 부분에도 실수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1TV 「2015 KBS 트로트 대축제」

- 트로트 대축제 방청에 당첨되었다. 12월 17일 11시부터 선착순으로 표를 배부한다고 하여 추운 날씨에도 7시부터 줄을 서서 15번째로 표를 받았다. 그런데 막상 표를 받아보니 2층 좌석이었다. 1층은 지정석으로 제외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향후 선착순으로 표를 배부할 경우 공정하게 배부해 주기 바란다. <12월 18일 보고서>

○ 1TV 「콘서트 7080」

-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했다. 당첨자 발표는 매주 목요일 정오(12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도록 게시판이 열리지 않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미리 방청 신청을 하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한 시간도 길게 느껴진다. 앞으로는 시청자 참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지한 시간에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KBS 2015 신년기획 희망창조, 대한민국의 길」

- '대한민국,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와 방청객, 시청자들의 의견까지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티벗(Tvut)과 KBS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했는데 본인처럼 스마트폰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어 아쉬웠다. 총 4부작으로 방송 예정이며 앞으로 고령화와 통일, 갈등해소에 대해 다룬다고 한다. 고령화나 통일을 주제로 한다면 젊은 층 보다는 중장년층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전화 참여를 신설해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1월 14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파장과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에는 방송 중 시청자들의 의견을 전화로 접수받고 이를 방송에서 소개해줬는데 현재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TVUT(티벗)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본인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쉽지 않다. 각계 전문가들이 현안을 두고 집중 토론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이 토론에 참여하거나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면 좋았을 것이다. 추후 토론 진행시 시청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 전화를 개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3월 25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이 주옥같은 명곡을 들려줘 즐겨 시청한다. 가끔은 녹화현장을 방문해서 가수들도 보고 웅장한 현장 분위기도 느끼고 싶는데 대부분 서울에서만 녹화가 진행돼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방청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도 현장의 화려한 분위기를 느끼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기적으로 지역 녹화를 기획해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바란다. <2월 25일 보고서>

○ 2TV 「2015 KBS 연기대상」

- KBS 드라마를 정리하는 축제로 한 해 동안 드라마를 빛낸 배우도 볼 수 있고 좋아했던 드라마를 다시금 추억할 수 있어 방송을 기다렸다. 현장에서 좋아하는 배우도 보고 축제를 즐기고 싶어 방청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일반인 방청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하여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내년에는 시청자들도 시상식을 방청석에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란다. <12월 30일 보고서>

○ 1R 「KBS 공감토론」

- '동성 간 혼인 법제화 논란 쟁점과 파장'을 주제로 법률적으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할지 여부를 토론향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변호인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생방송 시간 동안 시청자 문자 참여로 의견도 받아 함께 공유했다. 그런데 방송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문자 참여를 하라는 내용이 인터넷 메시지를 통해 알려지면서 의견이 계속 반영되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문자 참여를 하게 되면 "#9730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BS 1라디오"라고 회신이 왔다.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문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7월 27일 보고서>

| 16. 홈페이지 |

○ 2TV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다. 이영희(송하윤 분)에 대한 소개 글에는 '첩의 딸로 태어나 생모에게 버림받고(생략)', '본처의 딸인 정희와 바꿔치기 당하면서 인생이 꼬이며(생략)'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개된 내용으로는 이영희(송하윤 분)가 본처의 딸로 태어났지만 첩의 딸 이정희(정이연 분)와 바뀐 것으로 나온다. 또한 이정희(정이연 분) 역시 본처 최명주(박현숙 분)의 딸이라고 표기돼 있으나 첩의 딸로 태어나 본처의 딸과 바뀐 인물이다. 아직 드라마 전개상 이영희가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상황이므로 역할 상 출연자 입장으로 보면 첩의 딸이라고 표기해도 무방하지만 드라마를 본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등장인물 소개 글을 수정해 주기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2TV 「영화가 좋다」

- 다양한 영화 소개를 통해 영화 속의 숨은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화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에서 매주 새로운 시사회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근 '나의 어머니' 시사회 이벤트가 진행되어 8월 18일 시사회 일정이 공지되었는데, 팝업 안내에는 8월 20일로 표기되어 당참자가 보기에 혼동스러웠다. 정확한 내용으로 공지해 주기 바란다. <8월 13일 보고서>

○ 홈페이지 개편 제언

- 2015년을 맞아 KBS 홈페이지가 개편됐다. 방청권 신청 게시판 등이 새로 신설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 점이 돋보인다. 그런데 편성표는 다소 불편해진 부분이 있다. 기존에는 편성표상에서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다시보기 서비스가 바로 가능했지만 개편 후에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다시보기가 가능해졌다. 또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채널을 설정하면 오늘 날짜로 다시 돌아와 채널 설정 후 다시 날짜를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 이미지를 편성표에서 함께 보여주다 보니 프로그램명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단순히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 익숙해서라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다. 홈페이지 편성표는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역사포털 KBS HISTORY 호평

- 2015년 KBS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역사포털 KBS HISTORY'라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KBS에서 방송된 역사 관련 콘텐츠를 정리하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역사적 시대와 지리, 인물, 기록으로 분류해 카테고리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아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역사를 공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또한 검색어를 통해 궁금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 편리했다.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역사인식의 범위를 넓혀주고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월 15일 보고서>

○ 1TV 「특집 다큐 세상 끝의 집 2」

- 국립공주병원을 배경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병원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다. 총 3부작으로 제작되었는데, 홈페이지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시보거나 방송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아쉽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면 좋을 것 같다. <7월 10일 보고서>

| 17. KBS 애플리케이션 |

○ 모바일 K-플레이어 다시보기 제언

- 모바일 상에서 K-플레이어를 통해 TV 시청과 다시보기를 즐겨 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무료로 시청이 가능했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유료 시청으로 변경되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의 경우 수익과도 관련이 있어 이해하지만 시사·교양 프로그램까지 유료로 전환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모바일 상에서 KBS 홈페이지 PC 버전으로 다시보기가 가능하지만 경로가 복잡해 편리성이 매우 떨어진다. KBS는 공영방송인 만큼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다시보기를 무료로 제공해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K플레이어 역사채널 호평**

- 최근 K플레이어가 새롭게 바뀌면서 역사채널이 신설됐다. 그동안 KBS에서 방영한 역사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채널인데 우리 미래세대의 역사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매우 시기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교육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K플레이어 역사채널 신설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월 6일 보고서>

○ **플레이어K 편성 제언**

- 본인은 평소 플레이어K를 통해 다시듣기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플레이어K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듣기 날짜 등이 달라져 불편하다. 예를 들면, 1FM「음악풍경」에서 1월 17일(토) 방송 마지막에 선곡된 음악이 'Chopin, 녹턴 op.9-2, Fou Ts'ong (Pf) 03:20'이었다. 그런데 플레이어K PC 버전에서는 16일(금) 다시듣기를 해야 해당 음악이 확인된다. 스마트폰 버전에서는 17일(토) 다시듣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 '콩'에서는 1월 16일(금) 방송 다시듣기에 등록되어 있다. 청취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표상 날짜를 기재해 주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18. 시청자 서비스** |

○ **시청자 서비스 만족**

- 지난 1월, 방송 소재로 제출했던 자료를 돌려받기 위해 KBS를 찾아갔다.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지만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던 자료였다. 그런데 자료를 보낸 지 몇 개월이 지나도 자료를 받았다는 답변도 없고 방송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본인의 자료가 하찮게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상한 상태로 KBS를 찾아가니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담당자 면담은 어렵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주겠다고 며 시간을 본인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줬다. 점심식사도 거른 채 몇 차례를 여기저기를 수소문하고 다니더니 KBS시청자상담실에서 여직원 두 명이 나왔다. 상담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해주고 시간이 다소 소요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해줘 화가 났던 마음이 풀어졌다. 결국 여러 명의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자료도 찾을 수 있었고 방문 당시 가졌던 KBS에 대한 불쾌한 마음도 가라앉히고 돌아왔다.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로 시청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애써준 보안요원과 시청자상담실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4월 27일 보고서>

| **19. 프로그램 구매** |

○ **1TV 「2015 KBS 특별기획 슈퍼차이나」**

- 신흥대국이라 불리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성장 원동력을 주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다큐멘터리이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중국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 관심 있게 시청했다. 제작진이 7부작을 방송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고 조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정리해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무척 유익할 것이다.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방송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서 발간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1월 29일 보고서>

○ 1TV 「바른말 고운말」

-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하는 우리말을 바로잡고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게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TV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사례를 예시로 보여줘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무척 도움이 된다. 신조어와 은어 사용으로 언어 파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바른말 고운말' 도서 발간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3월 26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소개되어 즐겨 시청한다. 방송 정보가 자막으로 나오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고 방대하여 메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방송된 내용을 요약해 도서로 발간한다면 훌륭한 생활정보 도서가 될 것이다. 꾸준히 사랑받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도서 발간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6월 24일 보고서>

○ 2TV 「2TV 저녁 생생정보」

- '황금 레시피'는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를 찾아가 그 가게만의 비법을 소개해 주는 코너이며 '찬, 찬, 찬, 완전정복'은 밑반찬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 큰 도움이 된다. 제철 재료와 따뜻한 정성이 들어간 이른바 집 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요즘 매우 시의적절한 코너라고 생각한다. 매 코너가 끝날 때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레시피를 출력해 요리할 때 활용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훌륭한 요리책자가 될 것이다. 도서 발간에 대해 적극 고려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오락적인 요소와 지역의 문화, 비경까지 함께 볼 수 있어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1박 2일'을 통해 소개된 지역은 방송이후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찾는다고 한다. 또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음식이 소개되는 경우도 많다. '1박 2일'에서 찾아가 지역과 음식에 대한 정보를 엮어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여행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발간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4월 9일 보고서>

| 20. 보도 제언 |

○ 1TV 「KBS 뉴스광장」

-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의 혼인신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 첫 심문이 열렸었다. 이에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 결혼 사례가 없는데, 미국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보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편파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중립적인 내용을 보도해 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한국 야구 홈런의 역사인 이승엽이 개인 통산 9번째 올스타에 선정되었다. 일본에서의 8년간 공백에도 KBO 사상 최초 400홈런을 돌파했고 여전히 3할대 타율로 실력도 최정상급이다. 특히 장외 홈런을 친 뒤 상대 투수를 배려하는 모습은 보기 흐뭇했다. 그런데 보도 중에 다른 선수와 비교하는 영상은 보기 불편했다. 세리머니가 짧은 이승엽과 세리머니가 가장 긴 선수를 비교한 자료라고는 하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7월 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북한의 잇단 도발로 촉발된 남북 간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 모습을 긴급하게 KBS뉴스 속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제시해줘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된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KBS에서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뉴스 속보로 방송해 주길 바란다. <8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본인은 평소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매일 아침「KBS 뉴스광장」'출근길 교통상황'을 빠짐없이 시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를 연결해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상습 정체구간들의 교통흐름을 알려줘 이동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방송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교통정보가 나오지 않아 무척 답답하다. 출근길을 준비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출근길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1TV 「시사진단」

- 교육부가 올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배포하였는데, 이 안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성폭력상담소 방이슬 활동가가 출연해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성폭력상담소 입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성의 성욕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와 충동적인 성욕에 대해 잘못된 통념들이 퍼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쉽게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로 보여진다. 그런데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는 성폭력 사례 외에 대처방법이나 대안 제시는 다소 부족해 보였다. 또, 남녀 평등한 입장에서 남성 성폭력 사례도 알려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8월 1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라인」

-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 주장에 대한 반대가 66.3%로 찬성보다 2배 넘게 많았다고 했다. 그런데 수감 중인 기업인들이 어떤 죄목으로 수감이 됐으며 수감 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앞으로 가석방 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 외국 사례를 통해 기업인들의 사법처리 과정과 사면에 대한 조건 등을 보여준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단면적인 내용보다 이유와 과정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기대해 본다. <1월 5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일상생활 중 쌓인 스트레스를 운동과 노래 등으로 푸는 방법을 소개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야구방망이로 물건을 부술 수 있는 일명 '스트레스 해소방'을 소개했다. '스트레스 해소방'은 부수고 싶은 물건을 고르고 방음장치가 된 방으로 들어가 방망이를 내리쳐 사정없이 부수는 방식이었다. 물건을 부수는 당사자는 스트레스가 풀릴지 몰라도 그런 모습을 보는 본인은 다소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시청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는 것은 좋지만 다소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5월 8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도토리는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중금속 배출을 돕는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가을 산에서 나는 보약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보도 내용 중 기자가 “잘 여문 도토리는 일부러 따지 않아도 깎정이에서 떨어져 쉽게 주을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산에 있는 도토리는 야생동물의 겨울 식량으로 채취가 금지되어 있는데, 도토리 채취 행위 금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차후 보도 시에는 채취 행위 금지에 대해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0월 15일 보고서>

○ 보도 요청

- 모범 어린이집 우수 사례: 인천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보육교사 자질 검증 필요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 합격률이 95%에 달하며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교사들의 자질에 대한 부분이 함께 나온다. 교사 자질에 대한 검증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고 보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감한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피해사례만이 아닌 귀감이 되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보도 요청

- 사법고시 임용 문제점: 금품 수수 혐의로 체포됐던 현직 판사가 검찰에 구속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그동안 법조인이 연계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많았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일정기간을 거친 후 검증을 통과해야만 판사와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을 단지 사법시험 결과만 가지고 임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인성과 경험을 중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고시를 통한 임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해외 사례를 비교해 심층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보도 요청

-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22일(일), 인천광역시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고 난 후 일정시설을 갖춰야 행정기관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캠핑장의 대부분은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시설이라고 한다. 더구나 텐트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많은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관리의 허술함이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고가 난 뒤에야 성급하게 수습할 뿐 예방에 대해서는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한 법령적용과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미루거나 간단한 법률만 적용해 피해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 사고가 난 뒤에야 관련법을 개정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보도해 주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보도 제언**

- 경남기업의 故성완중 대표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일명 '성완중 리스트'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남기업 비리 사건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방산 비리, 세월호 등 처리해야 할 일과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 경남기업과 자원 외교 비리 관련에 대한 의혹도 남아있는데 본질은 흐려지고 뇌물이 오고 간 것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당면한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뤄 국민들의 관심에서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4월 17일 보고서>

5 정보공개 안내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공개는 방송법 제 90 조(방송사업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청자본부장을 포함하여 모두 7인의 위원을 두고 있는데 감사실장, 법무실장, 편성국장, 편집주간, 교양 문화국장, 기술관리국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국장이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5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40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계
9	11	4	16	40



시청자 권익보호

■ 시청자 권익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 재산적 이익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입니다. 제 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 아닌 한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6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의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된 직원 중에서 시청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³⁾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KBS 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가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일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3) 2010년 6월 11일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은 시청자 본부장이다.

2015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125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125건]

월	구분	고충처리 홈페이지	시청자상담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1	1	3	5
2		0	3	8	11
3		2	3	6	11
4		0	2	4	6
5		1	0	11	12
6		1	0	8	9
7		1	6	12	19
8		1	2	1	4
9		1	0	8	9
10		0	1	15	16
11		0	4	6	10
12		0	2	11	13
계		8	24	93	125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66건)			비 제작부문(59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ido)	경영 (수신료, 시설)	수신기술 (난시청, IT)	기타	
건수	15	15	36	17	32	10	125

[민원 내용별 처리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17	13.6%
보도 취재요청(스포츠 포함)	4	3.2%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10	8.0%
진행(아나운서 언어 등)	4	3.2%
정정요청(보도, 프로그램)	3	2.4%
권리침해(초상권, 명예정보 등)	4	3.2%
시청자만족(프로그램, 공개방송, 홈페이지)	39	31.2%
난시청, 난청	26	20.8%
경영(직원, 시설)	18	14.4%
수신료	0	0.0%
계	125	100.0%

7

제작진의 답변과 시청자 권익보호

1 제작진의 답변

'KBS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 이첩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제작진과 각 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답변이다. 이는 시청자 의견 접수부서인 시청자국이 각 부서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결과를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민원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⁴⁾ 문서로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⁵⁾의 '제작진의 답변'으로 게시되고 시청자는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자국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에 게재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⁶⁾을 만들어 제작진의 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민원사무처리규정 제9조(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방송에 대한 거의, 이의신청 10일,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10일, 견학 신청 3일,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이다.

5) 홈페이지 주소는 <http://iaudience.kbs.co.kr/>

6) 선정기준은 2011년 1월 27일자로 확정,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중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_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10인 이상)
- _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 등의 발생으로 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_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보도, 방송에 대한 의견.
- _출연자들의 음전운전, 폭행, 도박 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시청자의 항의가 있는 의견.
- _타 방송, 신문 등 보도에서 논란이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
- _업무와 관련, 실명이 거론되는 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의견.
- _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견.
- _기타 제작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편 성	<p>□ 1TV [이완구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회] 녹화 중계 지적</p> <p>-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런데 10 일(화)과 달리 11 일(수)은 실시간 방송이 아닌 녹화로 중계됐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녹화해서 방송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앞으로는 녹화 방송이 아닌 실시간 중계를 해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1TV 편성부</p> <p>- 2월 11 일(수)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월 10 일(화) 경우 청문회 첫째 날이어서 생중계를 방송했으나 일반 프로그램을 이틀 연속 결방할 수 없어 2월 11 일(수)은 오후 2시부터 녹화 중계로 방송하였습니다. 타 지상파 방송과 MBC (12:20-13:30) (녹화중계)SBS (12:45-13:55) (녹화중계) 방송시간을 달리함으로써 더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월 11 일(수) 청문회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은「시사진단」,「KBS 뉴스 7」, 「KBS 뉴스 9」등에서 자세하게 다뤄지며, 이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구합니다.</p>
보 도	<p>□ 2TV 「KBS 글로벌 24」진행자 발언</p> <p>-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회장 제프 블래터가 지난 29 일 5선에 성공하자, 유럽 축구 연맹과 남미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월드컵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여 이와 관련 내용이 방송됐다. 자료화면이 나온 후 진행자가 “유럽이 월드컵에서 빠진다. 사실 양꼬 없는 찌뽕이나 마찬가지로 인데”라고 발언했는데 양꼬는 외래어로 ‘팔소’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일본식 표현을 삼가고 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국제부</p> <p>-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준국어사전에 따르면 양꼬는 떡이나 빵의 안에 든 팔을 일컫는 말로 일본 외래어입니다. ‘팔소’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쓸 수 없는 비속어는 아닙니다. 추후 더 신중한 단어 선택으로 뉴스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 1TV 「KBS 뉴스광장」동성 결혼 보도 제언</p> <p>-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의 혼인신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 첫 심문이 열렸었다. 이에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 결혼 사례가 없는데, 미국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보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편파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중립적인 내용을 보도해 주기 바란다.</p> <p>□ 일기예보 제언</p> <p>- 우리나라 지도를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각 지역의 날씨와 기온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픽 화면에는 각 시·도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울릉도, 독도의 날씨까지 표기해주고 있어 지역날씨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각 지역의 기온 차이나 인구의 밀집도 등을 감안해 일부 지역 날씨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부분이겠지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일기예보에서 꾸준히 짚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도 지역 날씨에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가급적 기상캐스터가 직접 독도 날씨에 대해 언급해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사회 2부</p> <p>- 동성결혼 보도와 관련해, 헌법과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반려한 서대문구청의 입장과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보도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시청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p> <p>□ 담당부서 : 과학재난부</p> <p>- 일기예보에 대한 관심과 제언 감사드립니다. 독도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기상학적 특이성을 감안해 일기예보 지도에 항상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상캐스터의 일기예보 방송에 항상 언급했으면 좋겠지만 기상 뉴스 시간이 짧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매번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p> <p>다만 KBS는 독도에 설치해놓은 파노라마 카메라를 이용해 독도 영상을 기상뉴스에 종종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나 영토문제가 뉴스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때 독도 관련 기상예보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심 감사하며 보내주신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p style="text-align: center;">시 사 교 양</p>	<p>□ 1TV [생방송 심야토론] '공무원 연금 개혁, 대타협의 길은?' 출연자 선정 지적</p> <p>-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출연자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을 통해 여당, 야당,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며 연금 개혁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일부 출연자의 경우 다른 출연자를 배려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등 토론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시청하기 불편했다. 더구나 해당 출연자는 진행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계속 이어가 더욱 눈살이 찌푸려졌다. 토론이 과열되어 방송을 원활히 이어나가지 못할 경우 단순한 제재가 아닌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출연자의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를 무음처리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 출연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기획제작국</p> <p>- 많은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지난 주 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출연자 섭외가 끝까지 난항을 겪었습니다. 꼭 맞는 인사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출연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섭외된 출연자였습니다. 당과 당 사이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각 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토론 생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출연자들에게 충분히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MC의 제지에도 발언이 계속 어어졌습니다. 당시, 발언을 중단시키기 위해 마이크를 무음처리 하는 방법도 검토했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자칫 더 큰 소란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무음처리하지 않고 기다리며 사회자가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출연자 섭외 때부터 더욱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이 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도 충분히 협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초기 무음처리에 대한 권고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1TV [생방송 심야토론] 참여 전화 개설 요청</p> <p>-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파장과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에는 방송 중 시청자들의 의견을 전화로 접수받고 이를 방송에서 소개해줬는데 현재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TVUT(티벗)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본인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쉽지 않다. 각계 전문가들이 현안을 두고 집중 토론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이 토론에 참여하거나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추후 토론 진행 시 시청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 전화를 개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기획제작국</p> <p>- 생방송 전화참여를 실시할 때, 오랜 통화 대기 시간, 전화 연결의 어려움, 일부 시청자의 생방송 도중 부적절한 발언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전화참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화참여를 희망하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서, 제반 사항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화참여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p>
연 예 오 락	<p>□ 2TV [위기탈출 넘버원] '안전사용 설명서 - 소화기' 소화기 교체관련</p> <p>- 본인은 소방관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5일, 방송에서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법과 보관법을 소개했다. 사용 가능 했수가 지난 소화기는 위험하다며 "주변에 8년 이상 된 소화기가 있다면 가까운 소방서 소화기 지원센터로 연락해 회수 후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내레이션 및 자막이 표기됐다. 방송이 나간 뒤 소방서로 회수와 교체를 해달라는 문의가 빗발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회수한 뒤 폐기처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시청자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모호한 표현보다는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줬다면 좋았을 것이다.</p>	<p>□ 담당부서 : 예능국</p> <p>- 소화기는 소화기 지원센터로 회수를 하는 내용으로 방송이 됩니다. 자막과 내레이션 과정에서 회수 후 교체라는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모호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의 취지는 시청자들에게 소화기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한 방송이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 2TV [개그 콘서트] '사둥이는 아빠 딸', '부영이' 개그 소재 지적</p> <p>- '사둥이는 아빠 딸' 코너에서는 아빠가 딸에게 새해 목표를 묻는 장면이 나왔다. 딸 역할로 나오는 개그우먼 김승혜가 "꼭 김치 먹는데 성공해서 김치녀가 되겠다."고 하며 "오빠 나 명품백 사줘. 아니면 신상 구두."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나왔다. '김치녀'는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우리나라 여성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남성에게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 방송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11월(일) 첫 방송된 '부영이' 코너에서는 산 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으로 출연하는 개그맨 장유환이 부영이로부터 길 안내를 받던 중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개그맨 이상구가 "재는 못 나나봐."라고 발언하고 박쥐 분장을 한 개그맨 박성호는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진 저 사람의 기분을 내가 알 것 같아."라고 말했다. 부영이와 낭떠러지, 즉 이러한 설정은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을 등반하던 중 부영이 바위에서 투신한 사건이 떠올라 시청하기 불쾌했다. 부영이는 '일베(일간베스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동물로 유희거리로 사용되며 추락사와 맞물려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베(일간베스트)'는 극우 성향의 정치색, 소수자에 대한 비하, 막장 문화로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이러한 매체에서 유희거리로 사용되는 소재를 개그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편집을 거쳐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인터넷 용어 사용에 신중하기 바라며 방송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재 선정 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예능국</p> <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11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778회 '사둥이는 아빠 딸' 코너에서 둘째 여름이가 "난 김치녀가 될 거야."란 대사에 아빠가 "드라마 좀 그만 봐! 다른 목표를 가져요."라며 나무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말을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점에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에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인터넷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차후에는 인터넷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영이' 코너의 내용이 '부영이 바위를 연상시킨다.' '특정 정치성향을 표방하는 커뮤니티와 관련이 있다.' 등의 추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제작진의 의도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 2TV [두근두근 인도] 촬영일정 변경 요청</p> <p>-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6 명이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낯선 땅에 가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20대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내용으로 2월 2일(월)에 인도로 출국해 촬영을 진행한다고 한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발생했으며 외교부에서 지정한 일부 황색경보 국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관광지에는 '여행유의'인 남색 경보지만 15개 주는 '여행자제' 지역이다. KBS 홍보실 보도 자료를 통해 제작진이 안전 확인을 포함한 모든 답사를 마친 상태라는 내용을 접했으나 현지답사만으로 완전한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 방송날짜도 미정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는 시기에 촬영을 해도 될 것이다. 단순히 연예인을 아끼는 팬으로써가 아닌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임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p> <p>□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건강검진 투어' 방송내용 지적</p> <p>- 출연자들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여 순위를 정하는 건강검진투어 2탄이 방송됐다. 기초체력을 점검하고 요속과 대변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주말 저녁 식사 시간대라 시청하기 거북했다. 앞으로 방송 시간대를 감안해 시청하기 불편한 내용은 방송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예능국</p> <p>- 현재 외교통상부 외국안전 지도에 따르면 인도 내에 있는 촬영지의 안전 정도는 스페인, 태국, 인도네시아와 비슷하며 필리핀보다 안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주 촬영 팀은 이미 일주일 가량 촬영지 답사를 마쳤으며 안전과 치안 그리고 동선 등의 제반 사항 체크를 마친 상태입니다. 촬영 때 현지 경찰이 촬영 팀과 함께 동행합니다.</p> <p>인도는 기본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지경찰이 같이 다녀야 합니다.</p> <p>주 인도 한국대사관의 홍철기 영사는 "제작진이 촬영을 하는 지역에서는 에볼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없다. 공항 검역도 철저하다. 또한 그 지역에는 최근 수년 내에 한국 사람이 강도를 당하거나 신체사고를 당한 사례가 없으며 제작팀이 여권 소지만 철저히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p> <p>□ 담당부서 : 예능국</p> <p>- 시청자들이 불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 했습니다. 실제 방송에 나온 장면보다 불쾌한 장면이 많았는데 건강검진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편집을 거칩니다. 시청자들이 시청하기 불쾌한 내용일 수도 있었겠지만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구합니다.</p>

8

부록(강령, 규정, 기준, 지침)

1

KBS 방송강령

[전문]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 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총 강]

I.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II.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III.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IV.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V.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VI.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VII.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방송 강령]

- 제 1 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 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4 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5 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6 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7 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8 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9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10 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11 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12 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13 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14 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15 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16 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17 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18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9 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20 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21 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22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23 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24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25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26 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27 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28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29 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 30 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31 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32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33 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 제 34 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균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35 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36 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7 항** 취재내용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8 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9 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40 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41 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는다.
- 제 42 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43 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 221 호
 개정 1986.12.8 규정 제 279 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 767 호
 개정 2008.8.5 규정 제 1081 호

개정 1984.9.3 규정 222 호
 개정 1991.4.29 규정 제 412 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 944 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 1148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사무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 가. 문의, 건의, 진정 및 질의 또는 이의신청
 -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 3 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국,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 4 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 5 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 지을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 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 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 6 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 3 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사무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이 제 1 항에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 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 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 3 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 8 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사내 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 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 9 조(처리기간)

- ①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 3)을 정한다. 다만,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준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5 조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 10 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 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 13 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 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② 제 1 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 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 사무처리 상황을 매월 1 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 업소장은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개정 91. 4. 29>

제 15 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 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신설 2008. 8. 1>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 년 9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 년 12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 년 4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년 4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08. 8. 1>

[별표2] <삭제 2008. 8. 1>

[별표3] <개정 2008. 8. 1>

<민원사무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 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 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 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등	10 일
■ 견학 신청	3 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 일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 월 일	월일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8. 1>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 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별지 제3호 서식]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 원 인 :
주 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 원 인 :
주 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3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 문서번호 : 시청자서비스팀 - 179호 (2009. 1. 28.)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 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 5 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제 6 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 2 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1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 9 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 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주 소			
	이메일 주소			
방송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피해사실	6 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요구사항				
<p>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 (인)</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KBS 고충처리인 귀하</p>				
*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4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 위원장 포함 7 인
 - 위원장: 시청자본부장
 - 위원: 감사실장, 법무실장, 편성국장, 편집주간, 교양문화국장, 기술관리국장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국장이 됨.
- 개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결정
 - ※ 정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
- 의사록:** ①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②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견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찬성함		반대함		의 견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결 과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제 차 심의위원회(년 월 일)의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